

백제왕도핵심유적
정책연구포럼

백제왕도핵심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진단과
방향제시

2021.05.24.(월)
공주 아트센터 고마

2021년 제1차 백제왕도핵심유적 정책연구포럼

백제왕도핵심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진단과 방향제시

2021.05.24.(월) 13:10-17:40

공주 아트센터 고마 컨벤션홀

프로그램

2021.05.24.(월) | 공주 아트센터 고마 컨벤션홀

[개회식]

사회: 송길상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13:10-13:20	개회사	곽수철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장
	환영사	권오영 백제왕도핵심유적 정책연구포럼 운영위원장
	축사	강경환 문화재청 차장

[1부] 발표

13:20-13:50	황룡사복원정비 고증연구의 과정과 과제	서효원 국립문화재연구소
13:50-14:20	공산성 왕궁유적 고증복원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현숙 공주대학교박물관
14:20-14:40	휴식	

[2부] 토론

14:40-17:30	지정토론	[좌장] 권오영 서울대학교
		[토론자] 김상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왕직 명지대학교 장헌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주성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유토론	참여위원 전체
17:30-17:40	폐회사	권오영 백제왕도핵심유적 정책연구포럼 운영위원장

목 차

발 표

황룡사복원정비 고증연구의 과정과 과제 01

서효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공산성 왕궁유적 고증복원연구의 현황과 과제 53

이현숙 공주대학교박물관

토 론

황룡사복원정비 고증연구의 과정과 과제 - 토론문 93

김상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왕직 명지대학교

공산성 왕궁유적 고증복원연구의 현황과 과제 - 토론문 97

장현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주성 국립문화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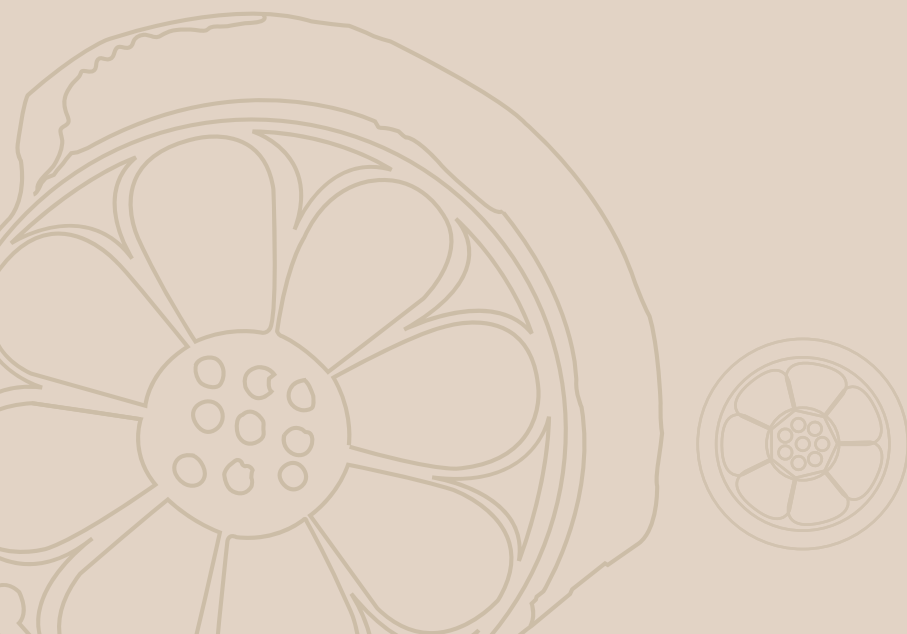


발표 1

황룡사복원정비 고증연구의 과정과 과제

서효원

국립문화재연구소



황룡사복원정비 고증연구의 과정과 과제

서효원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I. 서론
II.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의 특징과 고증연구의 역할
III. 황룡사 건축 고증연구 과정과 체계
IV. 고대 건축 고증연구의 과제
V. 결론

I. 서론

황룡사복원정비사업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경주시의 사업대행 요청을 받아 2005년 9월부터 현재 까지 이어오고 있는 장기 연구과제다. 이는 우리나라 고대 건축 관련 과제 중에서는 미륵사지 석탑 수리공사¹⁾ 다음으로 긴 프로젝트다. 현재 황룡사복원정비사업은 2024년까지 구체적인 연구가 계획되어 있고, 2035년까지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연구로는 국내 최장기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룡사복원정비사업은 장기 연구과제인 만큼 누적된 성과도 많은데, 연구보고서가 총 21권 발간되었으며, (보완)발굴조사보고서 2권, 계획보고서 8권, 학술발표·포럼·심포지엄 논문집 6권 등이 발간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황룡사 중문·남회랑 AR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대국민 서비스를 앞두고 있으며, 관련 기술이 특허로 출원(2건)·등록(1건)되었다. 단일 사지(寺止)를 대상으로 복원정비 연구를 이 정도로 장기간 연구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황룡사복원정비 연구가 우리 학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황룡사복원정비사업은 처음 시도된 본격적인 장기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연구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선두에서 질책과 조언을 받아가며 그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고증연구를 복원정비 과정

¹⁾ 2000년 12월에 시작되어 2019 12월(20년차)에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보수정비공사라는 점에서 복원정비연구와는 성격이 다소 상이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황룡사복원정비연구가 단일 고대 건축유적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긴 기간을 가진 연구 프로젝트이다.

의 첫 단계로 설정하고, 그 연구결과가 이어지는 계획과 설계, 시공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한 점은 소중한 유적의 복원정비가 충실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발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황룡사복원정비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 황룡사복원정비사업단은 고증연구와 복원정비계획수립에 국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사업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증연구의 체계에 관해 설명하고, 향후 연구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의 특징과 고증연구의 역할

건축유적 복원정비연구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실제 사업의 기반이 된다는 점이다. 복원정비연구의 결과물은 단순히 이론을 제안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복원·정비 공사의 근거가 된다. 복원정비연구의 결과물이 유적에 시행되는 물리적 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은 복원정비연구가 종합연구의 성격을 가지는 이유이자, 그 연구 과정에 전문가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하게 되는 이유이다.

고대 건축유적에서 복원정비는 문헌조사나 발굴조사를 통해 검증된 역사적 사실관계가 반영되고, 유적에 물리력이 가해지는 공사가 시행되는 단계이다. 복원정비를 위한 계획은 건축역사 전문가에 의해 제안·수립되는데, 이는 복원정비에 “건축·토목 공사”라는 물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가 동반되기 때문이다.²⁾ 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유적에 대한 역사적 지식과 함께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도 갖춰야만 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실제 공사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이 복원정비연구의 큰 특징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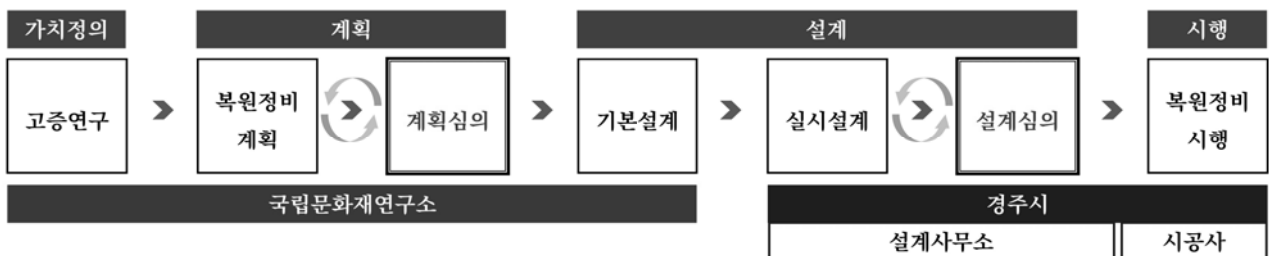


그림 1. 황룡사복원정비사업의 과정과 단계별 주체

2) 역사적 사실이나 고고학적 지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건축계획, 건축시공, 설계도서 작성 등 건축·토목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건축역사학 전공자에게 이와 같은 과업이 주어지게 된다. 한편, 유적 정비는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상에서 수리행위에 해당하고, 유적 정비공사는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및 이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에게 맡겨지도록 법률상에 정해져 있다.

한편, 복원정비의 계획을 제안·수립하는 건축역사 전문가는 전(前) 단계의 조사과정과 이후에 시행되는 공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문헌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역사적 사실들이 성실히 반영되어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를 통해 공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그 과업이 된다.

당연하게도 복원·정비계획을 수립하기란 쉽지 않다. 계획의 제안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개진된 모든 의견을 수렴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워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계획의 보완이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유적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단순하고 명쾌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전개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전개된 학설 사이에는 학자 간, 학계 간 의견대립이 존재한다. 또한, 복원·정비에 참여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심의기구 등 각 주체 간의 의견대립과 갈등도 계획 수립이 쉽지 않은 이유로 작용한다.

나아가 유적에 대한 수많은 의견과 이론을 잘 종합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복원·정비는 물리력이 가해지는 공사 시행이 동반되므로, 유적의 현상변경이 필연적이다. 한번 공사가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문화재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구는 복원·정비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듯 고대건축 유적의 복원·정비과정은 단계별 연구자나 관계기관 사이의 의견대립을 풀어나가는 과정이자, 심의기구를 설득해나가는 과정의 연속이다. 하지만 이런 대립을 조율하고 심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설득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복원·정비과정에 관계하는 모든 참여자가 한 목소리를 내는데, 그것이 바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³⁾ 어떤 제안에 대한 조율과 설득에는 반드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복원·정비연구는 그 근거를 구축하는 핵심과정이다.

“연구”는 복원·정비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수단으로서 “연구”가 복원·정비사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적의 원형을 밝히기 위한 고증연구는 모든 종류의 연구에 앞서는 핵심연구이다. 복원·정비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유적이 완성된 전성기의 모습이나, 처음 창건되어 멸실 되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단·정비공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유적 훼손 최소화 및 가역성 담보를 위한 공사방법 연구나 정비된 기단을 효과적으로 전시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연구에 앞서 수행되어야 할 연구는 기단의 본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이다. 어느 시기의 양식과 구조로 기단을 정비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면, 어떤 연구도 구체적인 계획이나 설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고증연구”란 복원·정비사업의 첫 단계이자,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연구이다. 복원·정비사업은 유적에 현상변경이 일어나는 공사로 이어진다는 특징을 지니며, 황룡사지와 같

3) 연구의 중요성은 황룡사복원·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내내 강조되어왔던 사안이다. 2006년 황룡사복원 국제학술대회, 2008년 황룡사복원 학술심포지움-황룡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2012년 황룡사 복원연구포럼, 2016년 황룡사 최근 연구성과와 과제 학술대회, 2017년 황룡사 고대건축 고증연구 현황과 과제, 2020년 고대 건축의 해석과 재현 등 최근까지 다양한 학술회의를 통해 많은 전문가가 향후 연구과제와 그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 중요 국가 사적은 관(官)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엄밀한 검증과 심의를 요구하게 된다. 사업 내에서 “연구”는 사업계획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구축함으로써, 검증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대립을 조율하고, 심의과정에서 전문가를 납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연구” 중에서도 “고증연구”는 복원정비의 기본방향, 즉 유적의 원형, 유적의 역사적 변천 과정, 복원정비의 시점, 건축물 및 시설물의 구체적인 양식과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연구이다. 다음 장에서는 황룡사복원정비사업에서 “고증연구”가 이루어진 과정과 그 체계를 살펴 보았다.

Ⅲ. 황룡사 건축 고증연구 과정과 체계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에서 가장 먼저 논의되는 것이 “원형”에 대한 것이고, 이 논의는 끊임없이 흘러온 역사 속에서 어떤 시점을 복원정비의 시점으로 삼을 것인가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복원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위해서는 복원정비 시점이 설정되어야만 하는데, 황룡사의 경우 사역이 완성되어 전성기에 접어든 통일신라 사역의 모습을 복원정비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유적 전체의 현황과 각 유구의 상태까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복원정비의 기준시점이 하나의 시점으로 제안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황룡사 역시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가 각각 복원정비 기준으로 거론된 바 있다.⁴⁾

사실상 이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이 복원정비사업과 연구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고증연구 역시 역사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유적과 유적에 분포하고 있는 각 유구의 변천과정을 가장 먼저 검토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향후 사업과 연구의 추진 방향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제안 하며, 이 단계가 황룡사 복원정비 기초연구의 첫 번째 과정이었다.

3.1. 기초연구의 체계와 특징

2005년 9월 첫발을 내디딘 황룡사복원정비사업은 2007년까지 연구를 통해 『황룡사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통일신라 시대 전성기 사역의 복원을 목표로 2035년까지 단계별 복원정비계획을 제안하였다. 이후 “기초연구”로 알려진 『황룡사 복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가 2007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이어졌다. 이 시기 연구는 인문학적 기반연구, 정비방안 기초연구, 복원고증 기초연구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4) 통일신라시대는 황룡사 사역의 전성기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며, 고려시대 황룡사 사역은 현재 유구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복원정비 시 유적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장점을 지닌다.

먼저 인문학적 기반연구는 황룡사지에 얽힌 역사적 배경을 폭넓게 밝히고자 진행된 연구로, 역사학, 미술사학, 도시사학, 고고학 등 황룡사를 둘러싼 역사문화환경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기반연구와 함께 진행된 정비 및 복원 기초연구는 유적의 현황을 파악하고, 선행된 발굴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 황룡사지 유적 전체의 변천 과정을 밝히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다. 이 과정에서 사역 전체의 배치뿐만 아니라 각 건물지 유구의 시대별 특징도 함께 연구되었다.

표 1. 황룡사 복원 기초연구의 내용 및 수행기간

구분	세부사업명	수행기간
황룡사 복원 기본계획수립	1. 황룡사복원기본계획 수립	2005.9 ~ 2007.1 (17개월)
	2. 황룡사복원 국제학술대회	2005.9 ~ 2006.6 (10개월)
황룡사복원 종합계획 수립 (5개년)	<1차 연구> • 황룡사유적의 건축학적고찰 • 복원 정비기술 사례 기초연구	2007.8 ~ 2009.3 (20개월)
	<2차 연구> • 고대건물지평면및구조시스템조사연구 • 연구용역(1과제) - 황룡사구층목탑의 기존복원안 구조해석	2007.12 ~ 2009.3 (16개월)
	<3차 연구> • 금당구조연구 • 고대건축기초조성법 • 연구용역(5과제) - 황룡사건립의 정치사회적 배경 - 황룡사출토유물연구 - 고대불교의례연구 - 고대가람배치 - 신라왕경연구	2009.6 ~ 2010.5 (12개월)
	<4차 연구> • 금당·목탑 상부가구구조 연구 • 유구보존을 위한 정비방안연구 • 연구용역(3과제) - 황룡사불상조성연구 - 황룡사유구 보존과학적 조사 - 황룡사남측석물 실측조사	2010.4 ~ 2011.3 (12개월)
	<5차 연구> • 황룡사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 • 황룡사 건물복원 고증기초연구 • 황룡사복원사업추진계획 • 연구용역 - 관리운영 및 활용계획 - 종합계획도서 작성	2011.4 ~ 2012.6 (15개월)

기반 연구	1. 인문학적 기반연구	1) 황룡사 건립의 정치사회적 배경 2) 고대불교 의례 연구 3) 신라왕경 연구 4) 황룡사 불상 연구 5) 출토유물 연구	▶ 콘텐츠 복원 활용계획 수립 ▶ 관광자원 네트워크화 계획 수립
정비방안 기초연구	1. 현황조사	1) 황룡사 사역 및 주변 측량 2) 황룡사 남측석물 실측조사 3) 황룡사 유구 보존과학적 조사	
	2. 정비기술연구	1) 정비 관련 사례조사 및 기술검토 2) 황룡사 유적의 정비방안 검토	
	3. 관리운영 및 활용방안 연구	1) 단계별 활용방안 및 관리방안 검토	
복원고증 기초연구	1. 고대건축 기반 연구	1) 금당 기초 및 고대건축 기초조성법 2) 고대가람 배치	▶ 사역 정비 계획 수립 ▶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 보존 정비 타당성 검토 ▶ 복원고증 설계 기초자료
	2. 발굴자료의 재검토	1) 발굴유적의 건축사적 재검토	
	3. 건물 복원고증 기초연구	1) 황룡사 목탑, 금당 등 가구구조 연구	

그림 2. 황룡사 복원 기초연구의 구성(2007년 8월 ~ 2012년 6월)

황룡사 복원 기초연구(2007~2011)은 정비방안과 복원고증을 나누어 연구하는 큰 틀을 완성한 연구로서 가지는 의미가 크다. 복원고증 기초연구가 사업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는 작업이라면, 정비방안 기초연구는 설정된 목적에 따라 사업의 방법을 구상하고, 실제 유적에서 시행 가능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작업이었다. 두 연구는 그 범위와 영역이 분명히 구분되지만, 연구 과정에서 서로 유기적인 상관 관계를 지니며, 하나의 연구성과가 다른 하나의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황룡사 복원 기초연구에서 다져진 정비연구와 고증연구라는 연구범주는 향후 이어진 심화연구에서도 이어지게 된다.

한편, 기초연구가 가진 한계도 명확했는데, 고증연구의 결과물이 복원공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립한 『황룡사복원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기본계획은 계획 수립 이후 5개년 동안의 목표를 황룡사 복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기초연구 5개년 동안 『황룡사복원종합계획』이 그 결과물로 제안되었고, 종합계획에 따라 황룡사복원정비사업은 심화연구(2012년 7월 ~ 현재)로 이어지게 되었다.

3.2. 심화연구의 체계와 특징

황룡사 복원 심화연구는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9년에 걸쳐 수행되고 있다. 기초연구와 같이 크게 고증연구와 정비연구로 나뉘어 수행되었고, 2013년에는 답장이, 2015년에는 중문이 기본설

계 대상이 되어 고증·정비연구와 별도로 복원설계가 진행되었다. 심화연구라는 연구 제목답게 각 연구는 총 43개 주제(그림 3)로 세분화되어 진행되어, 기초연구와는 확실한 차별성을 지닌다.⁵⁾

표 2. 황룡사 복원 심화연구의 내용과 수행기간

구분	세부사업명	수행기간
황룡사 복원 심화연구	<1차 연구> • 중문복원심화연구 • 목탑 및 금당복원심화연구 • 가람배치복원심화연구 • 담장복원연구 및 기본계획 • 신라건축 조영기술 연구 1차	2012.7 ~ 2013.10 (16개월)
	<2차 연구> • 담장 축조기법연구 및 설계 • 중문 및 회랑 복원기본계획 • 황룡사 1단계 정비계획	2013.11 ~ 2014.12 (14개월)
	<3차 연구> • 중금당 복원심화연구 • 황룡사 3D 모델링 • 중문 인왕상 복원안 고증 및 모형제작 • 황룡사 와전 고증연구 • 황룡사 철물 고증연구	2014.12 ~ 2015.12 (13개월)
	<4차 연구> • 중문 복원 기본설계(BIM 포함) • 강당 및 동서편건물, 남문 복원 심화연구 • 중문 설계관련 심화연구 • 복원건물 기초구조 연구 • 중문 및 담장 보완 발굴	2015.12 ~ 2017.06 (18개월)
	<5차 연구> • 황룡사지 보존정비 기본계획 • 회랑 복원심화연구 1차 • 외곽문 및 담장 복원 고증연구 • 황룡사 건축도구 고증 기초연구 • 황룡사 디지털 콘텐츠 구축 • 남문지 보완 발굴조사 • 중문지 및 담장지 보완발굴조사 추가작업	2017.03 ~ 2018.12 (22개월)
	<6차 연구> • 황룡사 보존정비 종합계획 워크숍 • 황룡사 중문 남회랑 증강현실 콘텐츠 보완구축 및 운영계획 • 황룡사 진입부 기단 연구 • 고대 목부재 결구법 연구 • 남문지 보완발굴조사 보고서발간	2018.12 ~ 2020.12 (24개월)
	<7차 연구> • 황룡사 회랑 내곽 건물지 기단 고증연구 • 황룡사 중금당 고증연구 • 결구법 연구(2차)	2020.12 ~ 2021.12 (12개월)

5) 한편, 고대 황룡사를 둘러싼 역사문화환경을 다루는 연구가 심화연구로 나아가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한계로 지적하기에 앞서, 심화연구가 기획되고 시작된 시점은 현재와 달리 학제간 연구에 대한 개념이 모호했고, 연구를 추진한 황룡사복원정비사업단 역시 역사문화환경전반을 다루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었던 당시 사업환경도 고려해야만 한다.

I 복원고증연구			I 복원고증연구 - 발굴조사
1. 건축고증 복원심화연구 1) 가람배치 2) 목탑·중금당·강당 3) 강당 동서편 건물 4) 중문·남회랑 5) 남문·담장	2. 구조·의장 복원심화연구 1) 황룡사지 기초구조 유구분석 2) 신라건축조영기술연구 3) 복원건물 기초공법 검토 4) 강당 의례 및 장엄구 고증연구 5) 중문 조상 고증연구	3. 기술·재료 복원심화연구 1) 황룡사 와전 및 철물 고증연구 2) 중문 와전 및 철물 고증연구 3) 판축담장 재료·구조실험 4) 고대 건축도구 고증 기초연구 5) 고대 건축 결구법 연구 6) 유구보호방안 검토	4. 보완발굴 조사 1) 중문지·동문지 2) 남회랑 동남우 3) 동편 남북도로 4) 담장 일부 5) 남문지 일곽
III정비계획연구			II 정비계획연구 - 정비학술지원
1. 황룡사지 1단계 정비계획 1) 중심사역 유구정비계획 2) 주변공간 정비계획 3) 황룡사 전체 사역 3D 모델링	2. 황룡사지 보존정비 기본계획 1) 유구 보존정비계획 2) 관람환경 개선계획	3. 황룡사지 기반 정비 연구 1) 황룡사 진입부 기반 정비안 2) 황룡사 회랑내곽 기반 정비안 3) AR 서비스 운용계획	4. 기반정비 학술지원 1) 설계도서 검토 2) 시공현장 학술지원 3) 기술지도회의의 학술지원
II 복원설계			II 복원설계 - 활용
1. 담장 복원정비계획 및 설계 1) 담장 복원고증연구 2) 담장 복원계획안 3) 판축담장 복원설계안	2. 중문 복원정비 기본계획 1) 중문 및 남회랑 복원고증연구 2) 중문 및 남회랑 기본계획안	3. 중문 복원 기본설계 1) 중문 기본설계 연구 2) 기본 설계 도면 3) BIM 데이터 제작	4. 중문 AR 콘텐츠 개발 1) BIM 데이터 최적화(3D 모델) 2) AR서비스 UI 개발 3) 위치정합기술 개발

그림 3. 황룡사 복원 심화연구(2012년 7월 ~ 현재)의 구성

나아가 고증연구의 결과를 정비계획과 복원설계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나갔다는 점 역시 기초 연구와 큰 차별점이다. 비록 예기치 못한 사업환경의 변화로 담장과 중문만이 복원설계의 대상이 되었으나, 고증연구를 토대로 제안된 복원안이 설계도로 구체화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황룡사복원정비 사업의 큰 진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중문 복원설계는 첫 황룡사 건축물 설계였으며, 단층안과 중층안으로 나누어 제안되었다. 이렇게 안을 나누어 제안하게 된 데는 앞서 밝힌 복원정비사업이 가지는 특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복원정비연구는 학설과 이론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작업이다. 때문에, 한 가지 제안 만으로는 서로 상충하는 이론이나 의견을 모두 담아내기 힘들다. 따라서, 현재 황룡사 건축 고증연구 는 하나의 안이 아니라 가능한 다수의 안을 검토하여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하나 심화연구 갖는 차별점은 제목 그대로 성과가 심화 되었다는 점이다. 복원고증연구, 정비 계획연구, 복원설계 모두 각각 연구 과정이 고도화되었는데, 먼저 복원고증연구는 보완발굴을 시행하여 연구 내용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연구는 그 결과가 실제 기반 정비로 이어져,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다. 나아가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현장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등의 학술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복원설계는 디지털 복원으로 이어져, 관람자가 황룡사 중문을 유적에서 직접 증강하여 체험할 수 있는 앱(application)이 개발되었다.

한편, 중문 복원설계와 디지털 복원은 황룡사 복원이라는 황룡사복원정비사업의 직접적인 목적에 유일하게 부합하는 가시적인 성과이다. 현재 황룡사복원정비사업단은 2024년까지 황룡사 중금당 디지털 복원 성과를 운용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고증연구 이후 중문 기본설계안이 나오기까지 5년이 소요되었고, 다시 디지털 복원에 2년 남짓이 소요되었으므로 2024년까지 중금당을 디지털 복원하는 계획은 결코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없다.(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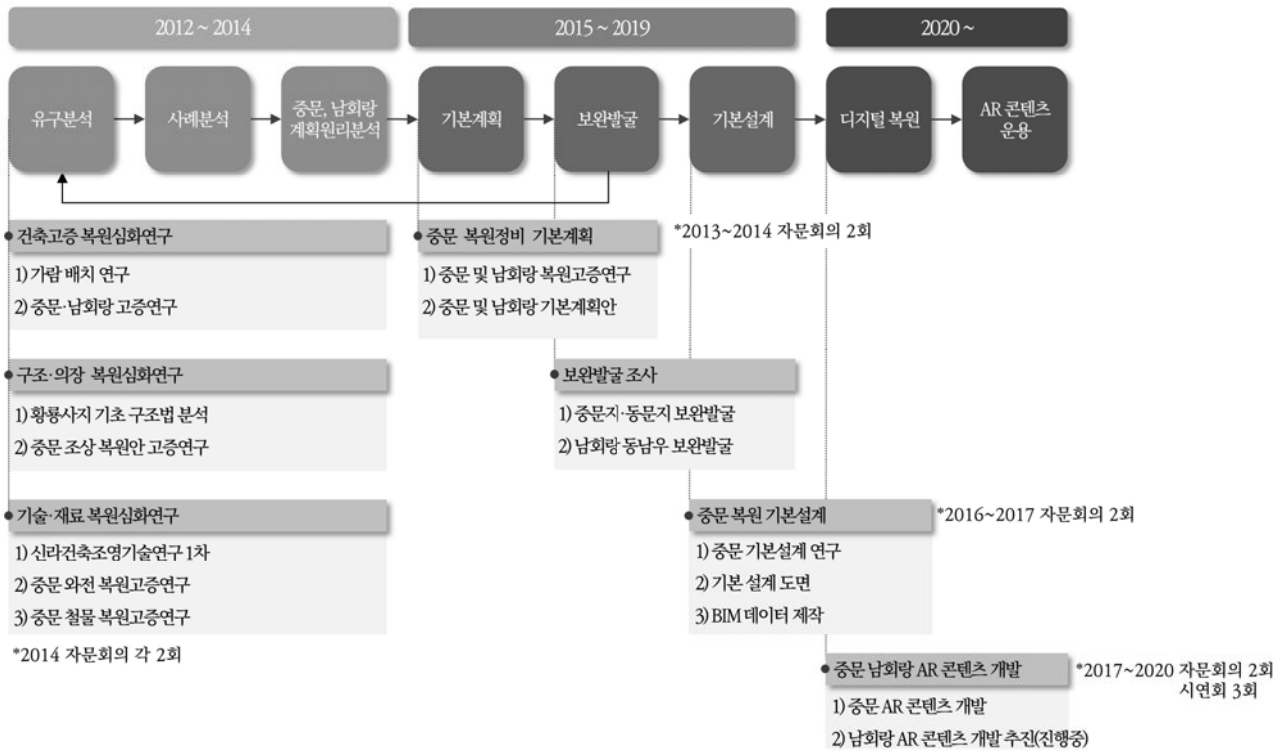


그림 4. 중문 복원설계 및 디지털 복원 과정

건축 고증연구는 유구분석과 사례분석, 건축계획분석을 기초연구 단계로 삼고, 건축물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양식과 구조를 결정하여 고증안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심화연구 단계로 설정한다. 중금당 역시 유구분석과 사례분석 등 기초연구 단계의 검토는 일단락 되었으나, 구체적인 고증안을 제안하기 위한 심화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예를 들어 중금당에 계획할 추녀의 내밀기 정도나 고정방식, 처마나 용마루의 곡률 같은 매우 세부적인 계획요소도 고증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세부 계획요소들을 연구하는 과정은 복원정비연구 나아가 그 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이 세부 계획요소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 도출 가능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심이 그것이다. 실제로 연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며, 이 질문은 고대 건축 고증연구의 과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 고대 건축 고증연구가 가지는 과제와 한계에 대해 짚어보았다.

IV. 고대 건축 고증연구의 과제

4.1. 실물 복원과 고증연구의 한계

고대 건축 고증연구에 있어 복원정비사업 관계자들이 논의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사안은 사업의 목표 설정에 있다. 이는 복원정비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물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직접적인 치환이 가능하다. 황룡사복원정비사업의 목표는 2007년 기본계획과 2012년 종합계획에서 실물 복원으로 설정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사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황룡사지의 경관을 크게 변화시킬 건축물 실물 복원이 어려워진 실정이다.⁶⁾

본 장은 고증연구의 과제를 다루므로, 실물 복원의 실현 가능성이나 보존윤리에 대해 다루기 보다는 실물 복원이 고증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하고자 한다. 실물 복원이란 건축물을 직접 건설한다는 뜻이다. 공사가 유구에 미치는 영향을 차치하고라도, 건설공사를 위해서는 단 하나의 복원안이 결정되어야만 한다. 건설을 통해 세울 수 있는 건물은 건물지 당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증연구가 제안하는 복원안에 대한 검증은 더욱 철저해질 수밖에 없다. 건설을 위해서는 세부 계획이 정밀한 치수로 설계도서에 기재되어야만 하고, 이를 검증하거나 심의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고증연구를 통해 세부 계획 치수가 결정될 수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묻게 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증연구는 복원정비사업 시행 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연구이다. 고증연구는 복원정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업의 모든 근거를 고증연구의 성과로 뒷받침 할 수는 없다. 고증연구는 유구 조사결과와 관련 사료를 바탕으로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고증안을 도출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주어진 조사결과와 사료 이상의 고증안을 도출할 수는 없기에 항상 약점을 가지기 마련이다. 실물 복원을 목표로 단 하나의 완벽한 고증안을 도출해야만 하는 사업환경에서는 고증연구가 가지는 약점과 한계는 더욱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

4.2. 복원정비연구의 특성과 고증연구 성과물의 효용

황룡사복원정비사업은 37권에 달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예산과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과물은 적은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더러 있다. 단일 유적지에 대한 유례없는 장기 연구과제로서 그 연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사례이고,

6) 그럼에도 황룡사지를 보유한 경주시민들과 경주시민들을 대표하는 경주시는 실물 복원을 마음 깊이 염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7) 디지털 복원은 이러한 고증연구에 대한 의구심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디지털 복원은 비록 현장감이 다소 떨어져, 관람효과가 반감된다는 단점이 크지만, 실제 건설되지 않으며, 가상 공간 안에서 다양한 복원안을 가시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실제 정량적 연구성고가 충분함에도 절하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에 대한 답은 복원정비연구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경주시로부터 수탁받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대행하는 황룡사복원정비연구는 사적 제6호이자 세계유산인 황룡사지의 복원과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복원과 정비는 계획과 설계를 거쳐 지자체가 시행하는 실제적 행위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복원정비연구의 결과물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자체의 복원정비 공사의 시행 근거가 된다. 따라서 복원정비연구는 연구 진행과정에서 유적복원정비와 관련된 다양한 관계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집단 중에서도 연구결과를 직접 수용하여 복원정비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연구결과가 사업 수행의 첫 단추가 되므로, 사업의 결과물, 즉 실제 유적복원정비성과를 복원정비연구의 성과와 동일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유적복원정비성과를 복원정비연구성과와 동일시하는 이러한 경향은 황룡사복원정비연구 성과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복원정비연구의 결과란 실제로는 고증안, 정비안, 계획안, 설계안과 같은 제안들이다. 이 제안들이 시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구와 시행을 연결하고, 그 둘 사이의 간극을 메꾸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 직접적으로는 제안들을 검증하고 심의하는 전문가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증연구의 효용은 전문가를 설득하는 단계에서 발휘된다. 황룡사복원정비연구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장기 과제로 수많은 관련 전문가가 사업의 검증과 심의에 참여하였다. 중문 복원설계가 자문회의라는 검증절차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성실한 연구를 통해 그간 쌓아온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진짜에 가까운 고증안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연구와 검증을 거친 고증안에 공감한다. 관련 사료를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 것인지, 필요한 연구는 모두 수행했는지가 결국 현재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고증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 기간은 이러한 전문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면밀한 검토와 검증에는 절대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1년간의 연구결과와 10년간의 연구결과가 같은 고증안이라도, 1년짜리 고증안이 전문가의 신뢰를 받는 일은 절대 없다.

고증연구의 결과에 따라 제안되는 고증안이 설계안으로 확정되어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제안이 우리 문화재 관계 법규와 보존정책의 방향에 부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에 관해 형성된 국민적 공감대에도 어느 정도 일치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연구결과가 그대로 시행될 수는 없으므로, 연구결과의 시행 여부가 연구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사업관계자 모두 인식해야겠다. 또한, 연구결과물이 시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실한 연구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복원정비사업의 시행 여부는 결국 전문가의 의사결정에 달려있다. 성실한 연구는 전문가의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4.3.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연구 환경개선

현재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수요는 크게 늘어나 있는 형편이다. 문화권별 고도(古都)가 지정되었고,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각 지자체의 호응 역시 활발하다. 또한, 각 고도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활용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공주, 익산, 부여를 아우르는 백제역사문화권의 고도지역에서는 미륵사지에 이어, 공산성, 왕흥사지, 왕궁리유적 등의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진행 혹은 착수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고증연구 수행이 가능한 전문인력이 필수적이다. 고대 건축유적 고증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무적 능력이 필요한데, 고대 사료 독해, 발굴 자료 독해, 동아시아 목조건축 이해, 건축도면 작성능력 등이 대표적이다. 황룡사복원정비사업단은 오랜 기간 연구를 이어온 만큼 사업단을 거쳐 간 연구원들 역시 많은데, 대부분 이러한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는데 1년여의 기간이 필요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연구원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점과 연구인력을 충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고대 건축 고증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대 건축을 전공한 연구자를 탐색하게 된다. 그러나 학계에서 고대 건축 전공자를 찾는 것이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 사료의 한계로 연구의 난이도가 높고, 진로가 한정적이므로 전공자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이다.

복원정비사업의 수요가 늘고 있으므로, 복원정비연구를 수행할 연구자도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학계에서 배출하지 못하므로, 현실적으로 복원정비사업을 통해 수행되는 연구 과정에서 인력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향후 복원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연구환경을 개선해 인재를 모으고, 전문인력 양성하는 일에 모든 사업관계자가 관심을 두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대 건축유적을 다루는 일은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을 소유한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에게 제한적으로 허락되어 있다. 현재 복원정비사업과 연구에 몸담은 연구자에게 배타적인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미래 인력양성에 소홀하면, 복원정비사업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V. 결론

황룡사복원정비사업에서 고증연구가 가지는 위상은 사업의 첫 단계라는 지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고증연구의 결과가 이어지는 모든 단계에 반영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고증연구는 복원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근거를 만들고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성실한 고증연구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기초연구에서 심화연구로 이어진 황룡사복원정비사업의 연구는 고증연구와 정비연구로 크게 구분되며, 기초연구 단계에서는 인문학기반연구가 심화연구 단계에서는 복원설계가 함께 진행되었다. 오랜 기간 진행된 황룡사 건축 고증연구는 성실한 연구 과정을 바탕으로 부족하지만 전문가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고증연구가 전문가,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인식개선과 함께, 연구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황룡사복원정비사업은 실험적 시도와 오류를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지금의 체계에 이르렀다. 물론 언급하지 못한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지만, 현재의 사업 및 연구 체계에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미리 겪은 수많은 실패의 경험이 녹아 있으므로, 반면교사로 삼을만하다. 본 고에서 밝히는 황룡사복원 정비사업 고증연구의 과정과 체계가 향후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참조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함께 기재한 한계와 과제가 이어지는 사업들에서는 극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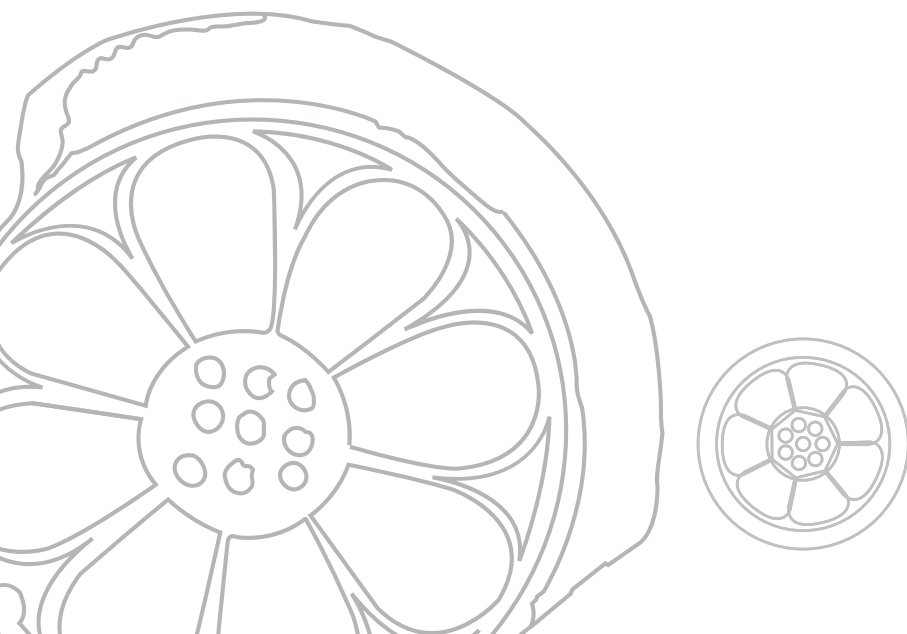
발표 1

황룡사복원정비 고증연구의 과정과 과제

발표자료

서효원

국립문화재연구소



황룡사복원정비 고증연구의 과정과 과제

1. 서론: 황룡사복원정비사업의 성과

1. 서론 : 황룡사복원정비사업의 성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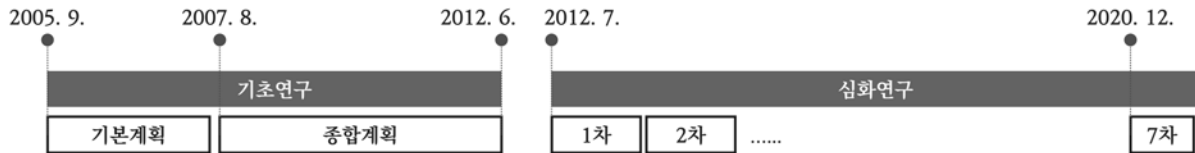
17년 차 고대 건축유적 최장기 연구과제

1. 서론 : 황룡사복원정비사업의 성과

2005. 9. ~ 2021. 5.

1. 서론 : 황룡사복원정비사업의 성과

2005. 9. ~ 2021. 5.



2024년까지 사업확정, 2035년까지 사업예정

1. 서론 : 황룡사복원정비사업의 성과

37

연구총서 21권 / 학술자료 16권

1. 서론 : 황룡사복원정비사업의 성과

황룡사 복원 기초연구 성과



- 황룡사연구총서
- 1 황룡사 유적의 건축학적 고찰(2009) 발굴유구 검토
 - 2 복원정비 기술 사례 기초연구(2009)
 - 3 고대 건물지 평면 및 구조시스템 조사 연구(2009)
 - 4 황룡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2009) 기반연구분야
 - 5 황룡사 금당 기초 연구(2010) 금당 발굴기초
 - 6 황룡사 복원 기반 연구(2010) 역사 도시 불교
 - 7 황룡사 중심각 출토유물(2010)
 - 8 황룡사 복원 고증 연구(2011) 불상 복원
 - 9 황룡사지 유구보존을 위한 정비방안 연구(2011)
 - 10 황룡사 건물복원 기초연구(2012) 각 건물 고증 기초

황룡사 복원 심화연구 성과 2012. 7.~2021. 현재

- 11 황룡사 복원 제1차 심화연구(2013) 중문 등 주요건물 고증연구
황룡사 담장 복원정비 기본계획(2013) 판축담당 복원안

- 황룡사 판축담당 측조기법 실험 및 설계(2014) 담장 설계
황룡사 중문 및 남회랑 복원정비 기본계획(2014) 중문복원안
황룡사지 1단계 정비 계획(2014)

- 12 황룡사 중금당 복원심화연구 1차(2015)
- 13 황룡사 와전 및 철물 복원고증연구(2015)

- 14 황룡사 강당 및 강당 동서편 건물 남문 복원심화연구(2017)
- 15 황룡사 중문 와전 및 철물 복원고증연구(2017)
- 16 황룡사 복원건물 기초구조 연구(2017)
황룡사 중문 복원기본설계(2017)



황룡사 복원 심화연구 성과 2012. 7.~2021. 현재

- 17 황룡사 회랑 및 외곽문 영역 복원심화연구
- 18 황룡사 건축도구 고증을 위한 기초연구
황룡사지 보존정비 기본계획
황룡사 복원정비사업 발굴조사1 - 중문지, 동문지 등

2018



- 19 황룡사지 전입부 기반 고증연구
- 20 황룡사 중문과 남회랑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 연구
- 21 고대 목조건축 결구법 연구 1차
황룡사 복원정비사업 발굴조사2 - 남문지 일원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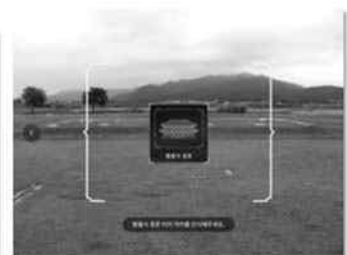


연구총서 21권, 총서 외 학술저작 16권
총 37권 연구저작 / 등록 특허 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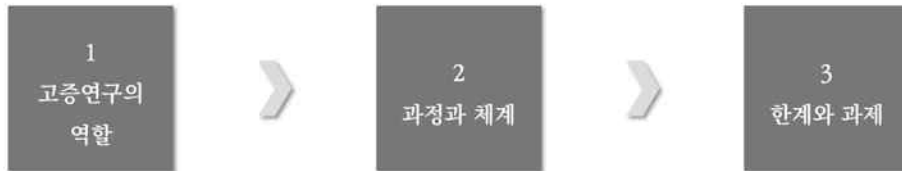
1. 서론 : 황룡사복원정비사업의 성과

황룡사 중문과 남회랑 증강현실(AR) 콘텐츠 개발

특허 등록 2건
App 개발 1건



■ 논의의 흐름



2.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의 특징과 고증연구의 역할

2.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의 특징과 고증연구의 역할

복원정비 사업의 Process



2.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의 특징과 고증연구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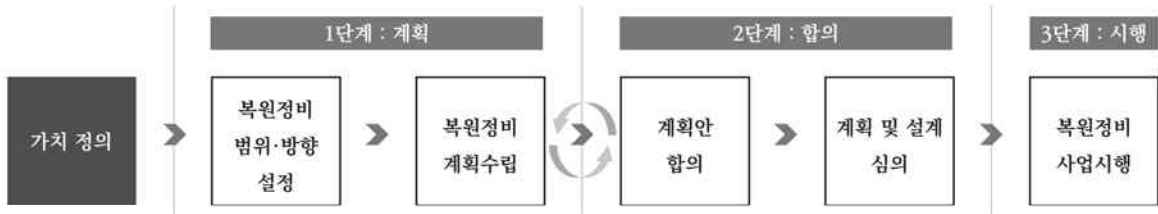
복원정비 사업의 Process



무엇을 복원정비하는가?

2.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의 특징과 고증연구의 역할

복원정비 사업의 Process



유적이 가지는 가치를 복원

2.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의 특징과 고증연구의 역할

복원정비 사업의 Process



복원정비 사업은 사회적 합의과정을 포함

2단계 : 사회적 합의(사업 관계자 / 전문가 / 국민 / 문화재위원)

1. 기본계획수립 (2005.9 ~ 2007.1)

- 2005. 9 : 경주시 수탁과제 협약
- 2006. 4 : 「황룡사 복원 국제학술대회」 개최
- 2006.12 : 「황룡사 복원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 2007. 1 : 「황룡사 복원기본계획」 수립 및 보고서 발간
- 2007. 8 : 문화재위원회 사적·건축 합동분과위원회 보고



2. 종합계획수립 (2007.8 ~ 2012.6) 복원기초연구

- 2008. 11 : 「황룡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개최
- 2009. 11 : 「황룡사 복원기초연구 워크샵」 개최
- 2012. 2 : 「황룡사 복원연구 포럼」 개최
- 2012. 6 : 「황룡사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보고서 발간



3. 복원심화연구 (2012.7 ~ 2021.5 현재)

- 2016.10 : 「황룡사 최근 연구성과와 과제」 개최
- 2017.10 : 「황룡사 고대건축 고증연구 현황과 과제」 개최
- 2018.06 : 「경주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합동워크숍 1」 개최
- 2018.09 : 「경주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합동워크숍 2」 개최
- 2019.07 : 「고고, 사적, 건축 3개분과 문화재위원 자문회의」 개최
- 2020.01 : 보존정비 계획 문화재위원회 보고
- 2020.07 : 진입부 기단정비 자문회의

1. 서론 : 황룡사복원정비사업의 성과

■ 복원정비 사업의 특징

사회적 합의는 왜 필요할까.

2.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의 특징과 고증연구의 역할

복원정비 사업의 특징



복원정비공사 시행을 전제로 한다.

2.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의 특징과 고증연구의 역할

복원정비 사업의 특징



“공사 시행”을 전제로 한다.

2.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의 특징과 고증연구의 역할

복원정비 사업의 특징



공사에는 단“하나”의 계획만 필요

2.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의 특징과 고증연구의 역할

복원정비 사업의 특징

유적 현상변경 동반, 단 하나의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 요구



조사·연구의 역할

2.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의 특징과 고증연구의 역할

조사·연구의 역할



원형 고증, 복원가치 정의

2.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의 특징과 고증연구의 역할

조사·연구의 역할



복원시점 설정, 복원안·정비계획 제안

2.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의 특징과 고증연구의 역할

조사·연구의 역할



합의 및 심의의 판단자료 제공

2.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의 특징과 고증연구의 역할

조사·연구의 역할



사업시행의 근거자료 제공

2.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의 특징과 고증연구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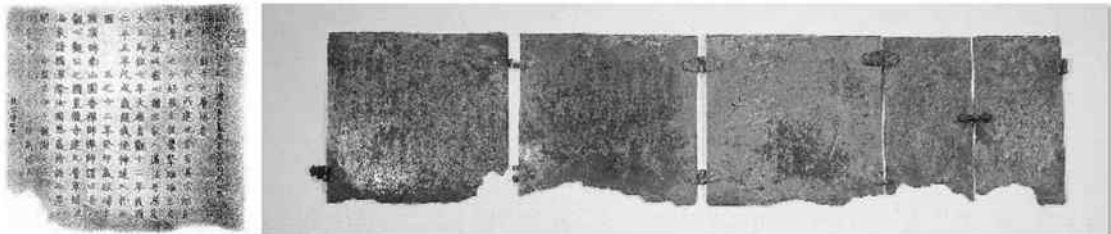
■ 조사·연구의 역할

조사·연구는 모든 단계에서 진행

2.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의 특징과 고증연구의 역할

■ 건축 고증연구의 역할

1. 원형 고증(복원시점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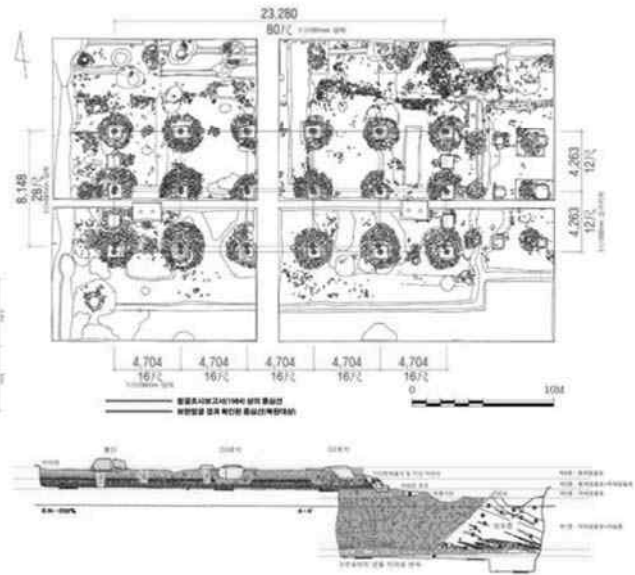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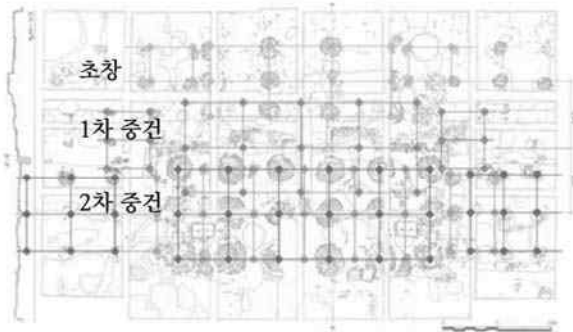


역사적 사실 및 고고학적 발견 종합

2.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의 특징과 고증연구의 역할

■ 건축 고증연구의 역할

1. 원형 고증(복원시점 설정)



역사적 사실 및 고고학적 발견 종합

2.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의 특징과 고증연구의 역할

■ 건축 고증연구의 역할

2. 복원안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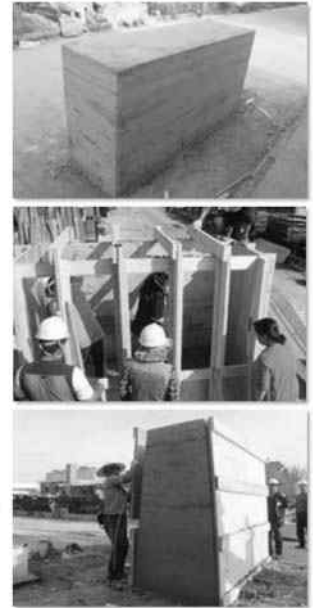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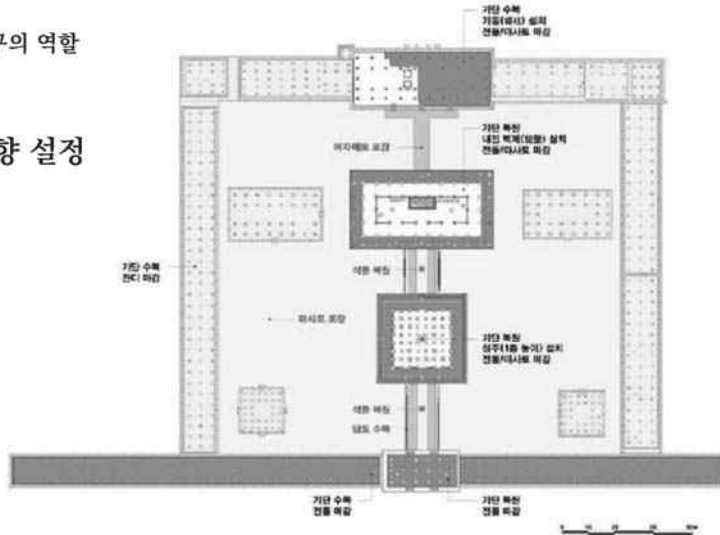
고대 동아시아 목조 건축에 대한 이해

	황룡사 복원정비 기본설계안	황룡사 건물복원 기초연구안	황룡사 복원 제1차 심화연구안
시기	1995년	2012년	2013년
형식	중층 우진각지붕	단층 우진각지붕	단층 맞배지붕
평면 규모	1층 : 정면 5칸 x 측면 4칸 2층 : 정면 5칸 x 측면 2칸	정면 5칸 x 측면 2칸	정면 5칸 x 측면 4칸
높이	건물 : 16.7m 기단 : 0.87m	건물 : 12.4m 기단 : 1.5m	건물 : 11.18m 기단 : 0.88m
용척	동위척(교구려척)	당척(300mm)	당척(294mm)
평면 및 입면			
구조 검토	상층공간의 기능결여 깃보 및 상층 우주 하중 전달 취약 깃보 총량 등 후대기법 사용	보와 깃보 접합부 구조 취약 회랑 집속을 위해 기단 및 주교 높 아짐에 따른 비례문제 발생	측면 기둥 상부결구 어색함 측면 기둥 보강 시기 불분명

2.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의 특징과 고증연구의 역할

■ 건축 고증연구의 역할

3. 정비방향 설정



일러스트 등 가시화(Visualizing) 도구 사용능력

2.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의 특징과 고증연구의 역할

■ 건축 고증연구의 역할

4. 기본 설계도서 작성 - 기본설계도, 시공지침



건축, 토목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이해 / 설계도서 작성능력



2.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의 특징과 고증연구의 역할

■ 건축 고증연구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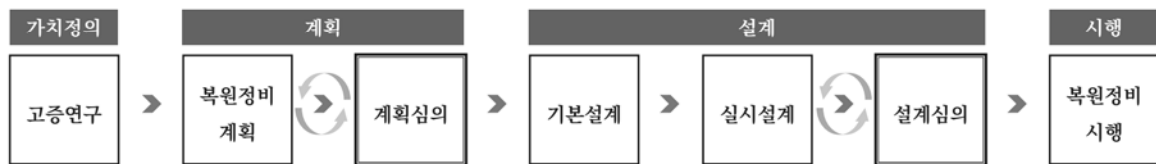
4. 기본 설계도서 작성 - 시공실험, 구조실험, 3차원 모델링(BIM)



건축구조에 대한 이해 / 3차원 모델링 작성 능력

2.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의 특징과 고증연구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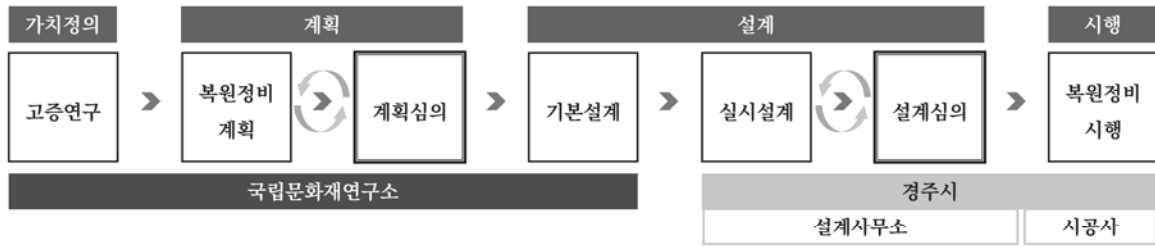
■ 건축 고증연구의 역할



고증연구는 복원정비사업의 첫 단추이자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연구

2.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의 특징과 고증연구의 역할

건축 고증연구의 역할



2.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의 특징과 고증연구의 역할

건축 고증연구의 역할



과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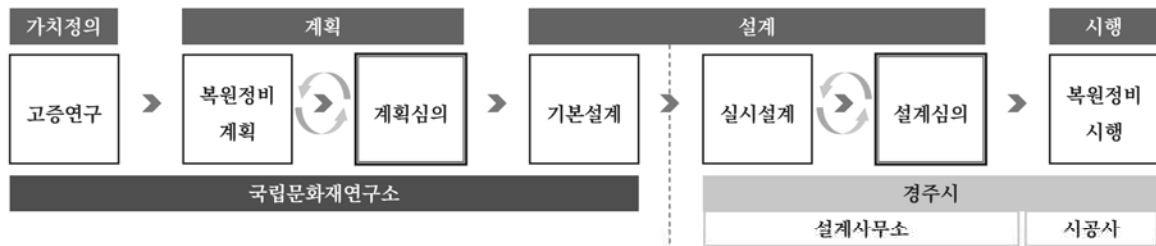
1. 원형 고증(복원시점 설정)
2. 복원안 제안
3. 정비방향 설정
4. 설계도서 작성

역량

- a. 역사적 사실, 고고학적 발견 종합
- b. 고대 동아시아 목조건축에 대한 이해
- c. 일러스트 등 가시화 도구 사용능력
- d. 건축, 토목 설계·시공·구조에 대한 이해
- e. 설계도서 작성능력 / 3차원 모델링 작성능력

2. 고대 건축유적 복원정비의 특징과 고증연구의 역할

■ 건축 고증연구의 역할



건축문화재연구실
황룡사복원정비사업단

3. 황룡사 건축 고증연구 과정과 체계

3. 황룡사 건축 고증연구의 과정과 체계



3. 황룡사 건축 고증연구의 과정과 체계

■ 기초연구(2007~2012)



3. 황룡사 건축 고증연구의 과정과 체계

기초연구(2007~2012)



3. 황룡사 건축 고증연구의 과정과 체계

기초연구(2007~2012)



3. 황룡사 건축 고증연구의 과정과 체계

■ 기초연구(2007~2012)

기반 연구	1. 인문학적 기반연구	1) 황룡사 건립의 정치사회적 배경 2) 고대불교 의례 연구 3) 신라왕경 연구 4) 황룡사 불상 연구 5) 출토유물 연구
정비방안 기초연구	1. 현황조사	1) 황룡사 사역 및 주변 측량 2) 황룡사 남측석물 실측조사 3) 황룡사 유구 보존과학적 조사
	2. 정비기술연구	1) 정비 관련 사례조사 및 기술검토 2) 황룡사 유적의 정비방안 검토
	3. 관리운영 및 활용방안 연구	1) 단계별 활용방안 및 관리방안 검토
복원고증 기초연구	1. 고대건축 기반 연구	1) 금당 기초 및 고대건축 기초조성법 2) 고대가람 배치
	2. 발굴자료의 재검토	1) 발굴유적의 건축사적 재검토
	3. 건물 복원고증 기초연구	1) 황룡사 복합, 금당 등 가구조 연구

3. 황룡사 건축 고증연구의 과정과 체계

■ 기초연구(2007~2012)

기반 연구	1. 인문학적 기반연구	1) 황룡사 건립의 정치사회적 배경 2) 고대불교 의례 연구 3) 신라왕경 연구 4) 황룡사 불상 연구 5) 출토유물 연구
정비방안 기초연구	1. 현황조사	1) 황룡사 사역 및 주변 측량 2) 황룡사 남측석물 실측조사 3) 황룡사 유구 보존과학적 조사
	2. 정비기술연구	1) 정비 관련 사례조사 및 기술검토 2) 황룡사 유적의 정비방안 검토
	3. 관리운영 및 활용방안 연구	1) 단계별 활용방안 및 관리방안 검토
복원고증 기초연구	1. 고대건축 기반 연구	1) 금당 기초 및 고대건축 기초조성법 2) 고대가람 배치
	2. 발굴자료의 재검토	1) 발굴유적의 건축사적 재검토
	3. 건물 복원고증 기초연구	1) 황룡사 복합, 금당 등 가구조 연구

■ 종합계획 수립(2012.6)

- ▶ 콘텐츠 복원 활용계획 수립
- ▶ 관람자원 네트워크와 계획 수립
- ▶ 사역 정비 계획 수립
- ▶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 ▶ 보존 정비 타당성 검토
- ▶ 복원고증 설계 기초자료

3. 황룡사 건축 고증연구의 과정과 체계

■ 기초연구 성과(2007~2012)

1. 인문학적 기반연구 수행
2. 고증연구와 정비연구 구분
3. 종합계획 수립
4. 건축 고증 기초자료 수집

3. 황룡사 건축 고증연구의 과정과 체계

■ 심화연구 추진현황(2012~현재)

■ 연구, 실험, 계획, 설계 등 총 43개 주제

세분화

1

I 복원고증연구

2

II 정비계획연구

3

III 복원설계

3. 황룡사 건축 고증연구의 과정과 체계



3. 황룡사 건축 고증연구의 과정과 체계



3. 황룡사 건축 고증연구의 과정과 체계

세분화

심화연구 추진현황(2012~현재)

■ 연구, 실험, 계획, 설계 등 총 43개 주제

I 복원고증연구

1. 건축고증 복원심화연구

- 1) 가람배치
- 2) 목탑·중금당·강당
- 3) 강당 동서편 건물
- 4) 중문·남회랑
- 5) 남문·담장

2. 구조·의장 복원심화연구

- 1) 황룡사지 기초구조 유구분석
- 2) 신라건축조영기술연구
- 3) 복원건물 기초공법 검토
- 4) 강당 의재 및 장엄구 고증연구
- 5) 중문 조상 고증연구

3. 기술·재료 복원심화연구

- 1) 황룡사 와전 및 철물 고증연구
- 2) 중문 와전 및 철물 고증연구
- 3) 판축담장 재료·구조실험
- 4) 고대 건축도구 고증 기초연구
- 5) 고대 건축 결구법 연구
- 6) 유구보호방안 검토

II 정비계획연구

1. 황룡사지 1단계 정비계획

- 1) 중심사역 유구정비계획
- 2) 주변공간 정비계획
- 3) 황룡사 전체 사역 3D 모델링

2. 황룡사지 보존정비 기본계획

- 1) 유구 보존정비계획
- 2) 관람환경 개선계획

3. 황룡사지 기반 정비 연구

- 1) 황룡사 진입부 기반 정비안
- 2) 황룡사 회랑내각 기반 정비안
- 3) AR 서비스 운용계획

III 복원설계

3. 황룡사 건축 고증연구의 과정과 체계

세분화

심화연구 추진현황(2012~현재)

■ 연구, 실험, 계획, 설계 등 총 43개 주제

I 복원고증연구

1. 건축고증 복원심화연구

- 1) 가람배치
- 2) 목탑·중금당·강당
- 3) 강당 동서편 건물
- 4) 중문·남회랑
- 5) 남문·담장

2. 구조·의장 복원심화연구

- 1) 황룡사지 기초구조 유구분석
- 2) 신라건축조영기술연구
- 3) 복원건물 기초공법 검토
- 4) 강당 의재 및 장엄구 고증연구
- 5) 중문 조상 고증연구

3. 기술·재료 복원심화연구

- 1) 황룡사 와전 및 철물 고증연구
- 2) 중문 와전 및 철물 고증연구
- 3) 판축담장 재료·구조실험
- 4) 고대 건축도구 고증 기초연구
- 5) 고대 건축 결구법 연구
- 6) 유구보호방안 검토

II 정비계획연구

1. 황룡사지 1단계 정비계획

- 1) 중심사역 유구정비계획
- 2) 주변공간 정비계획
- 3) 황룡사 전체 사역 3D 모델링

2. 황룡사지 보존정비 기본계획

- 1) 유구 보존정비계획
- 2) 관람환경 개선계획

3. 황룡사지 기반 정비 연구

- 1) 황룡사 진입부 기반 정비안
- 2) 황룡사 회랑내각 기반 정비안
- 3) AR 서비스 운용계획

III 복원설계

1. 담장 복원정비계획 및 설계

- 1) 담장 복원고증연구
- 2) 담장 복원계획안
- 3) 판축담장 복원설계안

2. 중문 복원정비 기본계획

- 1) 중문 및 남회랑 복원고증연구
- 2) 중문 및 남회랑 기본계획안

3. 중문 복원 기본설계

- 1) 중문 기본설계 연구
- 2) 기본 설계 도면
- 3) BIM 데이터 제작

3. 황룡사 건축 고증연구의 과정과 체계

심화연구 추진현황(2012~현재)

■ 연구, 실험, 계획, 설계 등 총 43개 주제

고도화

I 복원고증연구			I 복원고증연구 - 발굴조사
1. 건축고증 복원심화연구	2. 구조·의장 복원심화연구	3. 기술·재료 복원심화연구	4. 보편발굴 조사
1) 가람배치 2) 복담·중금당·강당 3) 강당 동서편 건물 4) 중문·남회랑 5) 남문·담장	1) 황룡사지 기초구조 유구분석 2) 신라건축조영기술연구 3) 복원건물 기초공법 검토 4) 강당 의재 및 장엄구 고증연구 5) 중문 조상 고증연구	1) 황룡사 파전 및 철물 고증연구 2) 중문 와전 및 철물 고증연구 3) 판축담장 재료·구조실험 4) 고대 건축도구 고증 기초연구 5) 고대 건축 결구법 연구 6) 유구보호방안 검토	1) 중문지·동문지 2) 남회랑 동남우 3) 동편 남북도로 4) 담장 일부 5) 남문지 일곽
II 정비계획연구			
1. 황룡사지 1단계 정비계획	2. 황룡사지 보존정비 기본계획	3. 황룡사지 기반 정비 연구	
1) 중심사역 유구정비계획 2) 주변공간 정비계획 3) 황룡사 전체 사역 3D 모델링	1) 유구 보존정비계획 2) 관람환경 개선계획	1) 황룡사 진입부 기반 정비안 2) 황룡사 회랑내곽 기반 정비안 3) AR 서비스 운용계획	
III 복원설계			
1. 담장 복원정비계획 및 설계	2. 중문 복원정비 기본계획	3. 중문 복원 기본설계	
1) 담장 복원고증연구 2) 담장 복원계획안 3) 판축담장 복원설계안	1) 중문 및 남회랑 복원고증연구 2) 중문 및 남회랑 기본계획안	1) 중문 기본설계 연구 2) 기본 설계 도면 3) BIM 데이터 제작	

3. 황룡사 건축 고증연구의 과정과 체계

심화연구 추진현황(2012~현재)

■ 연구, 실험, 계획, 설계 등 총 43개 주제

고도화

I 복원고증연구			I 복원고증연구 - 발굴조사
1. 건축고증 복원심화연구	2. 구조·의장 복원심화연구	3. 기술·재료 복원심화연구	4. 보편발굴 조사
1) 가람배치 2) 복담·중금당·강당 3) 강당 동서편 건물 4) 중문·남회랑 5) 남문·담장	1) 황룡사지 기초구조 유구분석 2) 신라건축조영기술연구 3) 복원건물 기초공법 검토 4) 강당 의재 및 장엄구 고증연구 5) 중문 조상 고증연구	1) 황룡사 파전 및 철물 고증연구 2) 중문 와전 및 철물 고증연구 3) 판축담장 재료·구조실험 4) 고대 건축도구 고증 기초연구 5) 고대 건축 결구법 연구 6) 유구보호방안 검토	1) 중문지·동문지 2) 남회랑 동남우 3) 동편 남북도로 4) 담장 일부 5) 남문지 일곽
II 정비계획연구			II 정비계획연구 - 정비학술지원
1. 황룡사지 1단계 정비계획	2. 황룡사지 보존정비 기본계획	3. 황룡사지 기반 정비 연구	4. 기반정비 학술지원
1) 중심사역 유구정비계획 2) 주변공간 정비계획 3) 황룡사 전체 사역 3D 모델링	1) 유구 보존정비계획 2) 관람환경 개선계획	1) 황룡사 진입부 기반 정비안 2) 황룡사 회랑내곽 기반 정비안 3) AR 서비스 운용계획	1) 설계도서 검토 2) 시공현장 학술지원 3) 기술지도회의 학술지원
III 복원설계			
1. 담장 복원정비계획 및 설계	2. 중문 복원정비 기본계획	3. 중문 복원 기본설계	
1) 담장 복원고증연구 2) 담장 복원계획안 3) 판축담장 복원설계안	1) 중문 및 남회랑 복원고증연구 2) 중문 및 남회랑 기본계획안	1) 중문 기본설계 연구 2) 기본 설계 도면 3) BIM 데이터 제작	

3. 황룡사 건축 고증연구의 과정과 체계

고도화

■ 심화연구 추진현황(2012~현재)

■ 연구, 실험, 계획, 설계 등 총 43개 주제

I 복원고증연구			I 복원고증연구 - 발굴조사
1. 연속고증 복원심화연구	2. 구조·의장 복원심화연구	3. 기술·재료 복원심화연구	4. 보완발굴 조사
1) 가람배치 2) 목탑·중금당·강당 3) 강당 동서편 건물 4) 중문·남회랑 5) 남문·담장	1) 황룡사지 기초구조 유구분석 2) 신라건축조영기술연구 3) 복원건물 기초공법 검토 4) 강당 의재 및 장엄구 고증연구 5) 중문 조상 고증연구	1) 황룡사 파전 및 철물 고증연구 2) 중문 파전 및 철물 고증연구 3) 판축담장 재료·구조실험 4) 고대 건축도구 고증 기초연구 5) 고대 건축 결구법 연구 6) 유구보호방안 검토	1) 중문지·동문지 2) 남회랑 동남우 3) 동편 남북도로 4) 담장 일부 5) 남문지 일곽
II 정비계획연구			II 정비계획연구 - 정비학술지원
1. 황룡사지 1단계 정비계획	2. 황룡사지 보존정비 기본계획	3. 황룡사지 기반 정비 연구	4. 기반정비 학술지원
1) 중심사역 유구정비계획 2) 주변공간 정비계획 3) 황룡사 전체 사역 3D 모델링	1) 유구 보존정비계획 2) 관람환경 개선계획	1) 황룡사 진입부 기반 정비안 2) 황룡사 회랑내곽 기반 정비안 3) AR 서비스 운용계획	1) 설계도서 검토 2) 시공현장 학술지원 3) 기술지도회의 학술지원
III 복원설계			III 복원설계 - 활용
1. 담장 복원정비계획 및 설계	2. 중문 복원정비 기본계획	3. 중문 복원 기본설계	4. 중문 AR 콘텐츠 개발
1) 담장 복원고증연구 2) 담장 복원계획안 3) 판축담장 복원설계안	1) 중문 및 남회랑 복원고증연구 2) 중문 및 남회랑 기본계획안	1) 중문 기본설계 연구 2) 기본 설계 도면 3) BIM 데이터 제작	1) BIM 데이터 최적화(3D 모델) 2) AR서비스 UI 개발 3) 위치정밀기술 개발

3. 황룡사 건축 고증연구의 과정과 체계

■ 심화연구 성과(2007~2012)

1. 43개 주제로 연구 세분화
2. 복원설계 시작(중문, 담장)
3. 보완발굴, 정비학술지원 등 연구 고도화
4. 중문 디지털 복원

* 인문학기반연구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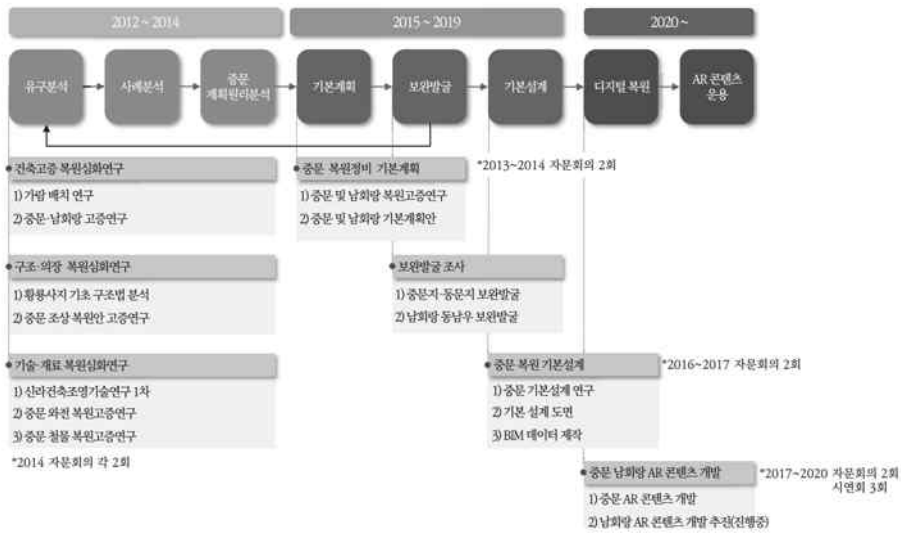
3. 황룡사 건축 고증연구의 과정과 체계

■ 중문 고증연구 추진경과(변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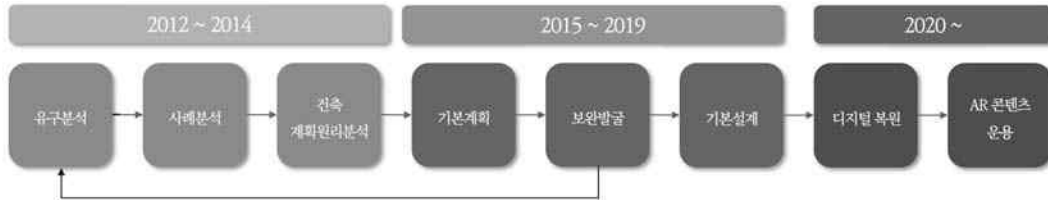
3. 황룡사 건축 고증연구의 과정과 체계

■ 중문 고증연구 추진경과(변경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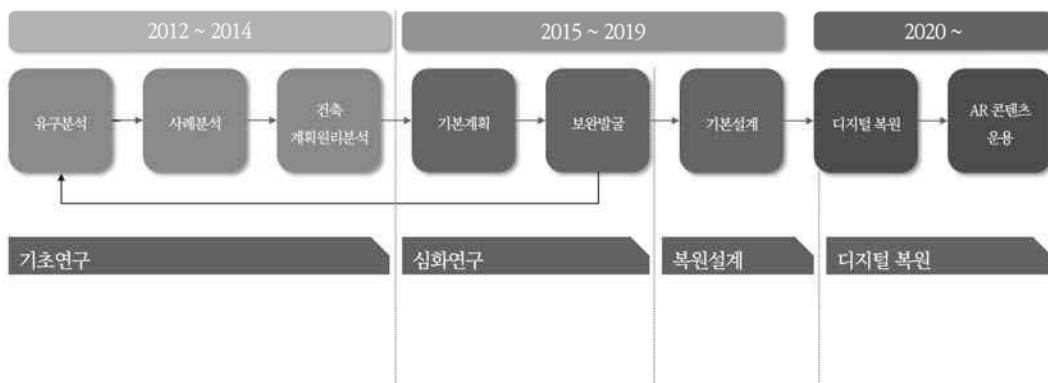
3. 황룡사 건축 고증연구의 과정과 체계

■ 건축 고증연구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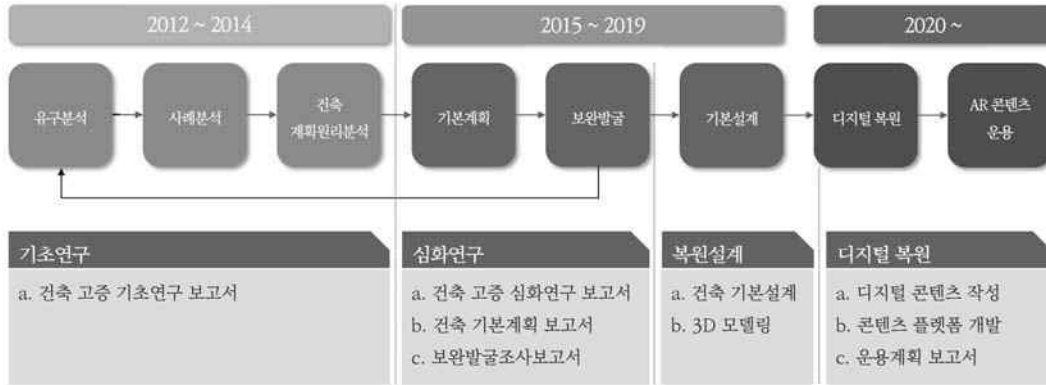
3. 황룡사 건축 고증연구의 과정과 체계

■ 건축 고증연구의 체계



3. 황룡사 건축 고증연구의 과정과 체계

■ 건축 고증연구의 체계



4. 고대 건축 고증연구의 한계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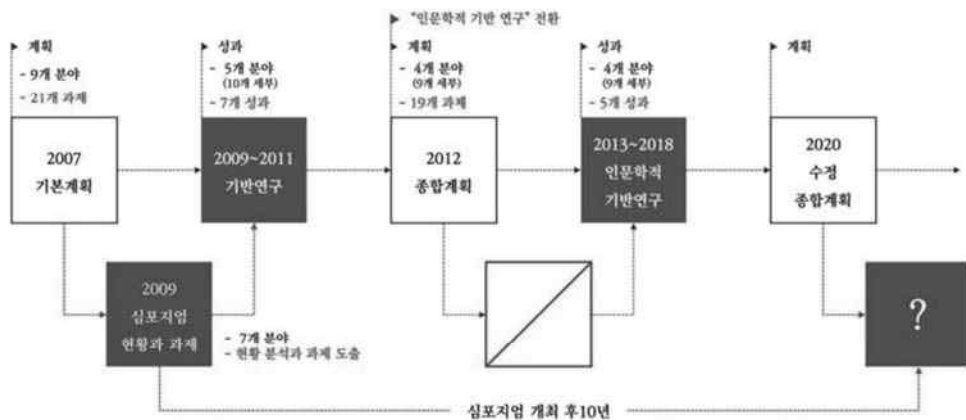
4. 고대 건축 고증연구의 한계와 과제

A. 학술 연구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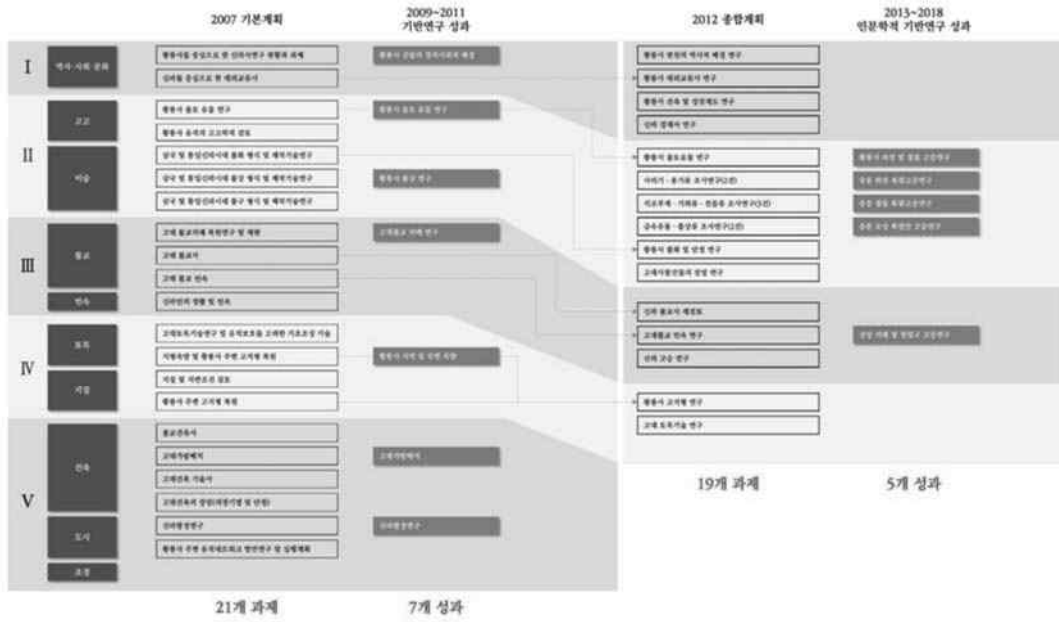




4. 고대 건축 고증연구의 한계와 과제



4. 고대 건축 고증연구의 한계와 과제



4. 고대 건축 고증연구의 한계와 과제

B. 복원정비 성과에 대한 인식 전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전시

4. 고대 건축 고증연구의 한계와 과제

복원정비 사업의 Process



복원정비 사업은 사회적 합의과정

4. 고대 건축 고증연구의 한계와 과제

복원정비 사업은 사회적 합의과정

1년 연구성과 vs 30년 연구성과

결과가 같더라도 1년 연구성과는 전문가와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한다.

4. 고대 건축 고증연구의 한계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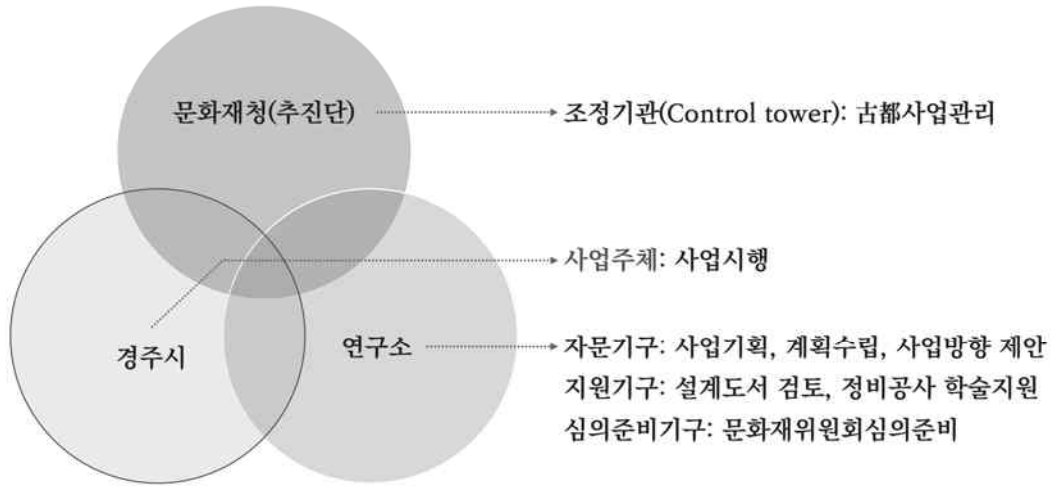
고증연구성과 전시는 실물복원으로 가는 발판



4. 고대 건축 고증연구의 한계와 과제

C. 문화재청 - 지자체 - 연구기관의 협업

4. 고대 건축 고증연구의 한계와 과제



4. 고대 건축 고증연구의 한계와 과제

관계기관 간 신뢰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승하는 복원정비

4. 고대 건축 고증연구의 한계와 과제

D. 연구인력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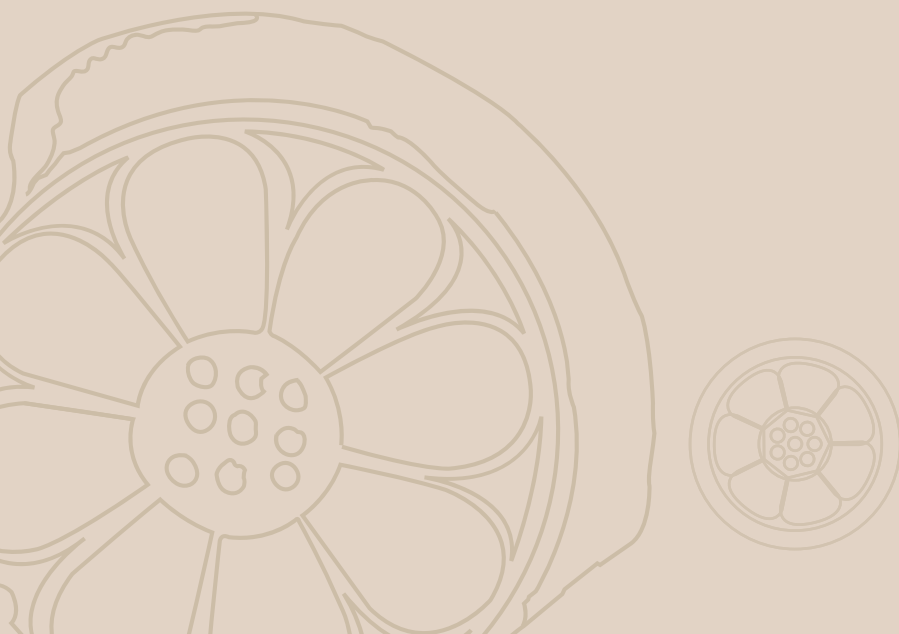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발표 2

공산성 왕궁유적 고증복원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현숙

공주대학교박물관



공산성 왕궁유적 고증복원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현숙

공주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실장

I. 머리말 II. 공산성 왕궁유적 고증복원연구의 추진현황 III. 고증복원 연구의 향후과제

I. 머리말

공주는 백제가 475년 웅진으로 천도하면서 백제 왕도로서의 역사적 실체가 구체화된 고도이다. 특히 백제 25대 무령왕의 무덤인 무령왕릉과 왕성인 웅진성, 즉 공산성을 통하여 백제 고도 웅진의 역사 문화경관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산성의 모습은 백제 이래 통일신라 ~ 조선을 거쳐 근대에 이르면서 지속적인 역사의 터전으로 활용되면서 변형되어 왔기 때문에, 백제 왕궁과 관련된 관청지 등의 공간구조 전모를 방문객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령왕릉과 공산성은 일찍이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1963. 1. 21.),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등재되었다.(2015. 7.) 특히 공산성은 부여 관북리유적,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유적 등과 함께 왕성과 왕궁 중심의 통치공간으로 주목되었으며, 왕궁과 도성 건설에 판축공법과 부엽공법, 토심석축공법 등 다양한 기법의 토목, 건축기술이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문화적 전통과 문명에 관한 독보적 증거를 인정받았다.

현재 공산성을 비롯한 백제역사유적지구 내 유적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과 기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고도보존계획 상의 지정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고, 고도보존계획상의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는 세계유산지구보다 넓은 지역에 지정되어 있다. 특히 고도보존계획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관리와 함께 ‘문화경관’ 조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단위 유적의 보존만이 아니라 그 보다 넓은 지역인 고도지역 전체의 역사적 골격 보존 및 회복·관리를 대상으로 한다.

그 동안 공산성 내 발굴 조사된 백제 건물지 가운데 왕궁관련 건축물의 지상구조를 단계적으로 복원 고증하여 시각화를 추진하고, 왕궁유적의 역사·문화 환경을 비롯한 종합적인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 연구』를 통하여 관람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는 백제왕도 핵심유적별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18~19년에 진행된 기반연구에 기초하여 공산성 내 백제 왕궁지의 존재 고증연구와 복원을 위한 단계별 심화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본고에서는 공산성 왕궁유적복원고증 연구의 추진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검토해본 후에, 문화유산의 가치에 중점을 둔 고증복원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공산성 왕궁유적 고증복원 연구의 추진현황

1.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 추진경위

세계유산지구와 고도보존계획에서 지정한 특별보존지구는 문화재보호구역에 중복 지정되어 있다. 고도지역에서 특별보존지구는 문화재보호구역에 준해서 관리되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육성지구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세계유산 지구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문화재보호구역 밖 버퍼존은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세계유산지구 관리와 고도보존계획은 역사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와, 역사적 진정성을 보존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고대동아시아에서 건축물과 건축 기술의 발전을 가져온 교류가 백제의 성곽 건축, 왕릉, 석탑, 건축물의 기단에 나타나고 있어서,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평가기준(ii)를 충족시키고 있다. 더불어 백제왕조의 독특한 문화, 역사, 종교와 예술의 뛰어난 증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이라는 평가기준(iii)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백제역사유적지구에 포함된 유적들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완전성과 문화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진정성, 나아가 지속적인 보존관리계획에 대한 다각도의 평가에서 인정되었다.¹⁾

고도보존계획에서의 고도는 ‘한 왕조의 국가 통치의 흔적과 기억, 왕경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흔적과 유무형의 역사적·정치적 흔적을 갖고 있는 곳’으로, 단위유적의 보존만이 아니라, 고도지역 전체의 역사적 골격 보존과 회복·관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관리와 함께 ‘문화

1) 노중국, 2015,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적 가치-세계유산 등재, 그 시작과 결실 그리고 미래-」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기념 국제학술대회』,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경관' 조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유산관리계획과 고도보존계획 모두 실체 확인을 위한 발굴, 복원, 정비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고도보존육성계획과 세계문화유산의 보전체계는 상호연계 속에서, 고도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경관을 조화롭게 보존함으로써 고도의 역사적 진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주목할 수 있다.

공산성의 역사적 골격 회복 및 가시화 사업은 고도의 역사적 진정성을 높이고 왕도로서의 이미지를 가시화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일찍부터 추진되어 왔다. 이는 체계적인 발굴조사와 발굴유적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하여, 유구의 일부를 가시화함으로써 일반인이 고도의 공간적 골격과 역사적 맥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특히 백제 웅진 왕도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왕성 발굴유구의 일부를 복원하거나 재건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계획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공산성 왕궁유적복원고증연구관련 계획

구분	계획내용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신청 보존관리계획 -공산성-(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가 웅진에 도읍할 당시의 왕성인 웅진성으로, 웅진도읍기의 백제 생활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독보적인 공산성의 역사성 회복 및 역사적 경관 보존관리
공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적 실체와 고도의 공간적 역사 골격회복으로 역사문화환경이 제고된 고품격 공주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산성의 왕성 이미지 부각 및 왕궁지유적 가시화 서사적 고도골격 회복을 위한 공산성 성격의 시대별 복원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 -공주-(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산성 왕궁지 유적 가시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 왕궁지 유적을 웅진왕도의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왕궁유적의 남겨진 실체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방안 연구 및 수립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공주-(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산성 왕궁지유적 가시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왕궁지유적을 재정비하고 백제고도인 웅진왕도의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 추가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백제 왕궁의 규모와 실체를 알 수 있는 유적이 발견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웅진왕궁의 형상을 입체적, 상징적으로 가시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웅진왕성 유적공원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유적 중 일부를 보존하고 복원 및 재현하되, 입체적 가시화를 통하여 시각적, 공간적으로 역사유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
백제왕도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 기본계획(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왕도의 개념 및 범위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술적인 발굴조사와 연구, 그리고 복원(2017~2038) 추정왕궁지 재발굴조사, 백제성벽 노출전시

백제왕도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웅진백제 왕궁성 공산성의 위상제고와 골격 회복 - 왕궁지와 왕궁부속시설지, 성곽 등 주요 유적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 및 고증 실시 - 주요 유적의 존재 성격과 기능을 인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복원 또는 재현을 위한 발굴조사 및 고증 - 연구조사 결과와 역사적 사실 및 기록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기법 모색(ICT기술활용, 스토리텔링 등)
--------------------------	--

<참고자료>

- 공주시,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13,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신청 보존관리계획』
- 공주시, 국토연구원, 2014, 『공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2015,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
- 공주시, 2016,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공주-』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백제왕도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준비단, 2015, 『백제왕도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 기본계획』
- 공주시, 국토연구원, 2018,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준비단계인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공산성 내 백제 왕궁관련 유적의 진정한 가치와 경관회복을 위한 고증연구계획이 이루어졌음을 살필 수 있다. 이는 웅진백제의 정치·문화·경제 중심지로서 왕도의 장소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공산성 내 백제 왕궁관련 유적과 유구에 대한 가시화를 위한 다양한 복원·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즉 역사자산의 가치 증대와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방문객 등의 다양한 주체가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에 기초한 것이다.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 추진 현황과 계획

2.1. 공산성의 연구와 조사현황

공산성은 일찍부터 백제의 왕성인 웅진성으로 알려져 있었고, 고고학적 조사는 일제강점기부터 이루어졌으나, 본격적인 조사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1980년부터 진행되었다. 그러나 조사된 제한된 범위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건물지의 형상이 잘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인 모습을 이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산성 내 전체 공간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도 거의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부터 약 40여년에 걸쳐 단속적으로 진행된 조사성과가 종합적으로 비교·정리될 수 있게 된 것은, 2011~2017년 공북루 남쪽의 백제 왕궁관련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부터이다. 그동안 진행된 공산성 조사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공산성 조사현황

구분	계획내용	계획내용
1910년 이전	백제-熊津城, 居拔城, 固麻城 통일신라-熊川城 고려-公山山城, 公州山城 조선-雙樹山城	-백제왕성 -사비천도 후 북방성, 무왕 31(630)년 이어지 의자왕(660) 피난지 -통일신라 김헌창의 난(822) 거점지 -고려시대 대몽항쟁 입보용 성(고려사절요) -조선시대 감영, 군영
일제강점기~1980 이전	산성공원 공산성	-1913년 산성공원 -1917년 세키노(關野 貞) 공산성 조사 -1932년 성내 유람도로 개설당시 가루베지은(輕部慈恩)의 현장조사 -1963년 사적 제12호 지정 -1969년 말 항공촬영 -1978년 문화유적 지표조사
1980~2000 이전	공산성	-1980년 만아루지·임류각지·동문지·장대지 등 공산성 내 건물지 중심의 발굴조사 -1985~86년 추정왕궁지 발굴조사 -1982~83년, 1993~94년 영은사 앞 백제연못 -1987~1988년 동쪽 성벽구간 조사
2000년대 이후	공산성	-공북루 남쪽대지와 추정왕궁지 중심 조사 -봉괴성벽구간에 대한 조사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 -공산성 왕궁유적 고증복원연구 진행 -공산성 발굴조사마스터플랜 수립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공산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주로 성 내부 평탄지를 중심으로 한 건물지 조사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1985~86년 쌍수정 일대의 추정왕궁지 발굴조사에도 불구하고 웅진기 백제 왕궁의 위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어왔다. 하나는 현재의 공산성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고²⁾, 다른 하나는 공산성 밖에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³⁾, 그리고 공산성 안에

2) ① 안승주·이남석, 1987, 『공산성 내 백제추정왕궁지 발굴조사보고서』, 공주사대박물관.

② 안승주, 1988, 「백제 도성(웅진성)에 대하여」 『백제연구』 19, 충남대백제연구소.

③ 유원재, 1993, 「백제 웅진성 연구」 『국사관논총』 45집, 국사편찬위원회.

④ 이남석, 1999, 「백제 웅진성인 공산성에 대하여」 『마한·백제문화』 14, 원광대마한백제문화연구소.

⑤ 서정석, 2000, 「백제 웅진도성의 구조에 대한 일고찰」 『백제문화』 29, 공주대백제문화연구소.

⑥ 田中俊明, 2002, 「百濟都城と公山城」 『백제문화』 31, 공주대백제문화연구소.

⑦ 심정보, 2003, 「웅진도성의 구조와 방어체제에 대하여」 『백제도성의 변천과 연구상의 문제점』, 서경, 166쪽.

⑧ 이현숙, 2017, 「백제 웅진도성의 구조와 축조시기」 『고문화』 89, 한국대학박물관협회.

3) ① 김영배, 1965, 「공주 백제왕궁 및 임류각지 소고」 『고고미술』 6-3·4(통권 56·57).

② 성주탁, 1980, 「백제 웅진성과 사비성 연구」 『백제연구』 11, 충남대백제연구소.

③ 박순발, 1996, 「백제 도성의 변천과 특징」 『중산 정덕기박사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

④ 박현숙, 2001, 「웅진 천도와 웅진성」 『백제문화』 30, 공주대백제문화연구소.

⑤ 김수태, 2001, 「웅진성의 변천」 『백제문화』 30, 공주대백제문화연구소.

⑥ 이도학, 2010, 「백제 웅진도성 연구에 관한 검토」 『동아시아 고대학』 23, 동아시아고대학회.

있다가 동성왕 8년(486)을 전후하여 공산성 밖으로 옮겨졌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⁴⁾ 이는 왕궁의 위치를 살필 수 있는 기록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고고학적 유적내용도 구체적으로 남아있지 않은 한계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웅진기 백제 왕궁의 위치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왕성으로서 웅진성의 존재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翰苑』을 비롯한 『周書』 『北史』 등의 중국사서에 왕성을 의미하는 고마성으로 웅진성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나, 무왕 31년(630) 사비의 궁궐을 수리할 때 약 5개월 동안 웅진성으로 행차하였던 기록⁵⁾ 등을 통하여 왕성인 웅진성 내 왕궁의 위치를 추론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공북루 남쪽대지에 대한 연차적인 발굴조사를 통하여 계획적인 도로구획과 대지조성이 이루어진 유적이 조사되면서, 백제 웅진도읍기 왕궁의 위치를 공산성 내에서 찾을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가 구체화되었다. 이에 공산성은 왕성과 왕궁으로 구성된 통치공간에 포함되어, 2015년 7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되었으며, 2018년부터 공산성 왕궁 유적 복원고증연구가 추진되었고, 2020년에는 장기적인 발굴조사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다.

2.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 추진현황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 연구’는 공산성 내 백제 왕궁관련 건물지의 학술적 고증연구를 기초로 종합적인 복원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8~2028년에 이르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연구 사업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공산성에 대해 심도 있는 고증연구를 통하여 역사성과 진정성을 기초로 복원정비의 타당성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 연구’는 공주시의 요청에 의해 추진되었고, 공주시와 국립공주대학교박물관이 협정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다.

초기 과업의 추진 당시 복원고증 연구의 이유와 대상, 그리고 방법에 대하여 지난한 숙제를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공산성 내 백제 왕궁관련 유구는 지상의 건축물이 전혀 남아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구의 형상을 검토할 수 있는 문헌기록도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었다. 구체적인 시각자료가 없는 백제 왕궁관련 유적은 건축문화 유산의 형태를 예측할 수 있지만, 복원고증연구를 통한 유적의 진정성과 보존가치를 체계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건축유적의 복원고증은 주로 건축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왔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설계와 정비복원을 위해서는 건축분야 중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유산과 고도보존을 위한 관련 계획을 고민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백제 웅진기 왕성의 역사적 증거자료로서 왕궁의 문화경관을 회복’하고자 하는 계획이 지속되었음에도, 왕성 내 왕궁의 위치와 구조, 웅진기 백제 건축유산의 형태의 형태와 층위 등에

4) 여호규, 2017, 「백제 웅진도성의 구조와 성격」 『백제, 한성에서 웅진으로』, 한성백제박물관, 143~193.

5) 『三國史記』百濟本紀 5, 武王 三十一年, “春二月 重修泗泚之宮 王幸熊津城.....秋七月 王至自熊津”

대하여 정밀한 고증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복원고증연구의 전제는 그동안 백제 왕성 공산성에서 치밀하게 고증하지 못한 유적의 진정성과 가치에 대한 연구가 집중된 이후, 고증복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 연구의 확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추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1) 왜 복원고증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공산성은 백제 웅진기 왕성으로서 사적이며,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대표유적이다. 특히 백제 웅진기 국가의 최고지배층의 거소인 왕궁과 지배공간이 존재하는 왕성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웅진기 백제 왕궁과 왕성에 관한 자료의 제한으로 시각적 기초자료가 매우 희박하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공산성이 웅진기 백제 왕성이라는 국내외의 문헌기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왕궁의 위치와 구조에 대해서는 발굴 조사된 지하의 유구를 제외하면 거의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에 따라 왕궁의 위치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현재 공산성은 조선~근대의 유구를 중심으로 그 형상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백제의 모습을 거의 살펴볼 수 없다.

따라서 공산성은 일찍이 백제 왕성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이 되었고, 이후 세계유산 백제역사 유적지구에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 왕성과 왕궁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상의 구조물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현재 공산성의 곳곳에 표현되어 있는 안내판과 지상유적의 상당부분은 조선시대 이후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조선시대 옷을 입고 있는 백제 왕성’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 이에 공산성의 백제 왕성으로서 성격과 구조에 대한 고증연구를 통하여 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가 존중되는 백제 웅진왕도의 역사적 가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는 백제 왕성의 문화경관 회복’이라는 주제가 간절하게 요구되었던 이유이다.

2) 무엇을 복원고증할 것인가?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 보존의 기본 원칙을 ‘원형유지’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무엇을 복원고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하기 위해 가장 주목해야 하는 주제는 공산성의 원형에 대한 인식과 가치에 대한 검토이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이유는 유산의 가치를 고스란히 유지시켜 후손들에게도 지금과 같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진정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평가되며, 그 구성요소는 완전성을 갖추어야 한다.⁶⁾ 여기에서 진정성은 문화재의 원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평가하는가를 기초로 어떻게 보존해야하는지에 대한 원칙과 관련 연구가 가능하다.

6) 김왕직, 2019, 「건축유적 정비복원의 진정성 보존」 『고대 건축유적 보전을 위한 고증연구와 정비·활용 방향』, 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건축역사학회, 13쪽.

공산성은 백제 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공주시의 중요한 역사·문화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사적이자 세계유산인 역사문화자산으로서의 적절한 보존과 활용에 대한 고민을 기초로 공산성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식하는 것과, 국민적 문화유산이라는 점에 비추어 다양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공산성은 고대국가 백제의 왕성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중심지로서의 역사적 가치(①)와 학술적 가치(②), 그리고 백제고도 공주의 역사성을 고양시키는 기념적인 상징가치(③), 문화경관의 체감과 체험교육, 역사문화 정보의 거점기능, 관광 네트워크의 거점지를 형성하는 경제적 가치(④), 도심 속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서의 정서적 공간가치(⑤) 등의 다양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공산성의 복원고증연구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고유한 가치의 고증을 통한 완전성과 역사·교육·관광을 포함한 경제적 가치를 대중이 공유할 수 있는 복원고증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산성 내에서 백제 - 통일신라 - 고려~조선 -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기의 유적이 중층으로 조성되는 과정에서 백제문화층이 훼손되거나 중층의 문화층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왕도의 경관과 왕성의 입지, 왕성의 공간구성과 왕궁의 위치, 주요 공간 활용에 따른 건물지의 기능 등과 같은 중요한 문화유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원형이 대부분 건축유산의 기초에 해당하는 정도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형의 완전성을 살피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공산성 내에서 다양한 방문자 모두가 즐기면서 고대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체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제한적이다.

공산성 내에서 복원 가능한 백제 왕성과 왕궁의 구조를 재현함으로써 방문객들이 고대 백제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경관형성을 갖춘다면, 활용성 높은 역사문화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산성 내 백제 왕궁지 유적의 가시화와 경관회복을 위한 정책을 도모한 것도 이와 같은 목적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대 건축유산은 대부분 목조문화재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목조문화재의 특성상 가시적 실체가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굴조사를 통하여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있으나, 발굴조사 이후 복토하여 잔디밭으로 덮여 있는 주요 유구에서 역사적 실체를 상징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일반 관람객에게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해설과 소개법이 필요하다.

현재 공산성에서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유구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공산성이라는 공간은 웅진기 백제 왕성으로서의 당시 공간이라는 진정성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계유산에 걸 맞는 보존정비 방안에 대한 고증연구가 가능하다. 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중심지인 백제 웅진 왕도의 정체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핵심유적으로서 공산성 내 왕궁유적을 구체적으로 복원고증할 필요가 있다. 즉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를 통하여 공산성 내에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왕궁유적의 중요 건물군을 중심으로 유구를 공개하거나 재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자료에 대한 복원고증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역사자산 가치의 증대와 보존을 통하여, 지역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어떻게 복원고증할 것인가?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떻게 복원고증할 것인가? 이다. 공산성에 대한 조사는 198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고증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적의 진정성을 유지하면서 가치를 확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복원고증 연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2018~19년에 걸쳐서 추진하고자 했던 ‘복원고증연구’는 충분한 고증연구와 정책반영을 위한 중장기계획으로 변경되었다.

공산성이 백제 왕성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웅진왕도 내 왕궁의 위치에 관한 문제, 그리고 공산성의 공간활용 등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유적의 성격에 대한 고증연구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왕궁의 격에 맞는 건물지의 배치와 공간구조, 백제 지상건축의 형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가 희박한 점에서부터 발굴 조사된 백제 건물지의 중복에 따른 층위구분에 관한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단위유구에 대한 복원고증연구에서 검토해야할 내용이 많았다.

또한 서양의 석조건축과 달리 한국의 목조건축은 지상구조물의 대부분이 목조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역사유적은 기초에 해당하는 적심부분이나 기단과 초석 등 건축공정의 10%이하 부분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부 목조건축을 복원하는 경우는 원형의 훼손도가 가장 높고 상징적 정서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단점은 있으나 의도적 기념가치와 경제적 가치, 이용가치는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어떤 가치를 회복시킬 것인지를 논의에 따라, 또 유적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건물복원은 논의될 수 있다.⁷⁾

공산성은 동일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행위로 인하여, 중층의 문화층을 이루거나 지상의 유적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구조물을 살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고대 건축유산의 경우, 보존 - 수리 - 보강 - 수복 - 이전 - 재현 - 복원의 개념이 있다. 그러나 지상의 구조물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주로 재현과 복원의 개념을 주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상 유적의 역사성, 학술성, 장소성에 대한 고증을 통하여 백제 왕궁관련 건축유산의 복원에 대한 범위와 방법에 대한 내용이 결정될 수 있다.

이에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는 국제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공주의 역사문화적 특성에 맞는 고유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되고 있다. 기존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신청서에 제시된 관리계획을 보면 건조물의 복원정비, 회복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계유산지구 내 일부 유산의 부분적 회복, 복원, 재건에 대한 가능성이 일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⁸⁾ 물론 이러한 복원, 재건은 1964년 “베니스 헌장”에서 ‘복원의 목적은 기념건조물의 미학적,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드러내는 것이며 복원은 추측이 시작되는 순간 멈춰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UNESCO의 유산보존 원칙과 충돌될 수 있다. 그러나 1994년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에서 ‘유형적인 것에서 무형적인

7) 김왕직, 2019, 앞의 논문, 17~18쪽.

8) 채미옥, 2017, 앞의 논문, 9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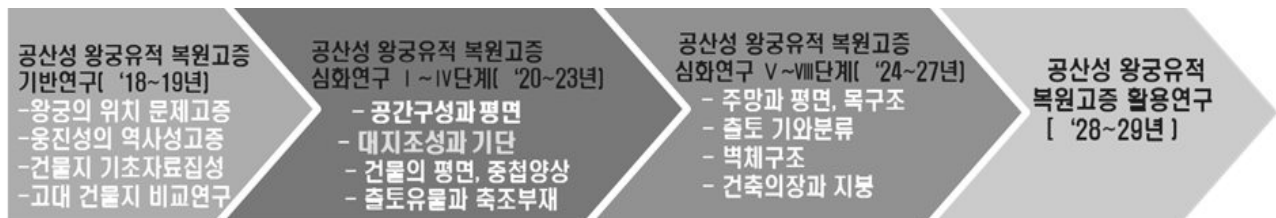
것으로 문화의 개념확장과 지역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보존의 확장 개념’이 논의되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여 다양한 보존방안을 도모하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같이 건축유산의 복원에 대해 다양한 인식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공산성 내에 중층 되어 있는 다양한 시기의 문화층 중에서, 웅진백제 왕궁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중심으로 백제 왕도의 골격과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가시화시킨다는 목적에 기초한다. 따라서 복원고증연구에서 공산성 백제 왕궁관련 유적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역사적 실체의 확인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역사자산 가치 증대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유적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복원에 대한 고도의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2.3.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

2018~2019년 시작된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목적은 “고대 왕궁의 구성과 웅진기 왕성의 공간활용에 대한 고증과 더불어 공산성 왕궁유적 내 건축물의 지상구조물 복원을 위한 단계적 고증과 시각화를 통한 검증”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단계별 계획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단계별 고증연구 계획



연구의 진행은 2018~19년에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 기반연구’를 시작으로, 2020년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 심화연구(I)’, 2021년 ‘심화연구(II)’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그동안의 복원고증 연구과정을 단계적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1) 2018~19년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 기반연구

표 4. 2018~19년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 기반연구

중장기 계획	역사문화연구	건물지 고증연구	건물지 비교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성 백제왕궁관련 건물지 복원 기본계획을 위한 기반연구 방향설정 • 향후 고증복원연구를 통한 복원 정비방향의 설정을 위한 심화연구와 단계별 고증연구 주제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웅진기 백제 왕도와 왕궁 기초자료 집성 • 웅진백제 문화상 고증 • 문헌자료의 한계 극복을 위한 자료집성과 웅진기 왕궁의 위치고증연구 • 웅진정도의 역사적배경 고증연구 • 한중일 고대 국가의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성 백제 왕궁관련 유적의 고증연구를 위한 백제 건물지 자료집성 • 공산성 내 백제 건물지의 분포와 공간활용 고증을 위한 지형분석과 웅진 왕도의 고지형분석 • 건물지자료집성-건축유구 연구현황분석 - 실험복원 -향후 고증복원 계획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성 왕궁유적 비교를 위한 한중일 고대 건축 유구 복원자료 수집 • 한중일 고대 도성 내 건축물 복원관련 자료 분석 • 고대 건물지 복원과정과 활용방안의 검토

(1) 웅진기 역사문화연구

고증연구의 전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다양한 문제요소가 해결을 필요로 하였다. 우선 웅진 왕도 내 왕궁의 위치에 대한 고증연구와 웅진기 백제왕도와 왕궁에 대한 기초자료의 분석, 그리고 왕궁을 중심으로 한중일 고대 국가의례를 비롯한 웅진백제 문화상 고증을 위한 고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문헌에 기초한 분석연구이며, 기존에 웅진기 왕궁위 위치에 대한 상반된 견해에 대한 논의의 집중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웅진기 왕궁의 위치에 대한 전문가 종합토론을 통하여, 공산성 내 왕궁의 존재에 대한 논의의 종합을 이루었으며,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 연구의 필요성을 함께 공유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또한 웅진백제를 중심으로 기존의 문헌자료 집성과 연구성과 기초자료 집성 등을 통하여, 웅진정도의 역사적 배경을 고증하였다. 이는 공산성 왕궁유적 고증복원연구의 기반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계의 구상을 진행하였다.

(2) 건물지 고증연구

건물지 고증연구는 웅진기 백제 왕성의 입지와 왕궁의 위치고증을 위하여 1차적으로 공산성의 지형과 왕도의 고지형에 대한 분석연구를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성 - 웅진 - 사비기 백제 건물지 자료를 왕궁과 관청, 종교와 제의유적을 중심으로 집성하여, 웅진기 건물지의 형태를 고증하고자 하였다. 건물지자료집성은 향후 단계별 건물지 고증연구의 초석이 되는 자료집성으로, 평면형태 고증을 비롯한 세부적인 분석연구는 향후 진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백제 왕성 공산성의 입지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웅진왕도와 공산성에 대한 고지형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기초로 고대 지형고증의 토대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웅진왕도의 도시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건물지 고증연구의 한 분야로 국내외 복원된 건물지자료의 현황을 종합하여 비교연구한 것이다. 『삼국사기』 온조왕 15년(B.C. 4) ‘春正月, 作新宮室, 儉而不陋, 華而不侈’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면, 백제 왕궁의 구조와 규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의 고대 왕궁관련 건물지의 복원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향후 연구의 추진 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3) 중장기 계획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단계적 연구진행을 위한 계획으로, 기존 복원고증연구 사례 검토를 통하여 향후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였다<표 5>.

표 5. 국내 복원고증연구가 이루어진 유적 현황

구분	추진연도	성격	비고
경주 불국사	1969~1973년 (5개년)	사찰	통일신라
경주 임해전지 복원	1977~1980년(4개년) 2010	궁궐	통일신라
경주 월정교 복원	1975~1988 (13년) 2006~2012	교각	통일신라
5대궁 복원정비 사업: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1985년~2009년(25년)	궁궐 의궤, 기록, 발굴	조선
화성행궁	1993~2010년(18개년)	화성성역의궤	조선
익산미륵사지 동탑복원	1988~1993년(6개년)	사찰, 서탑자료 참고	백제
익산 미륵사지 복원고증연구	2008~2021(13년)	사찰	백제
황룡사지 복원고증연구	2005~현재	사찰	신라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에 복원고증연구가 이루어진 유적의 경우 대부분 성격의 고증에서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은 사찰과 궁궐관련 유적이다. 궁궐유적의 경우 조선시대는 의궤와 기록을 통하여 유적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선시대 궁궐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경주 임해전지는 발굴조사 이후 사적지 정비방안으로 추진되어 고증 연구보다는 정비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고증연구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경주 황룡사지와 익산 미륵사지를 들 수 있다. 이들 유적은 모두 사찰이라는 정확한 성격이 고증된 유적으로, 불교 교리와 건축물의 배치에 대하여 집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공산성 왕궁유적은 왕성 내에 왕궁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복원고증연구를 계획하였으나, 발굴조사된 자료를 제외하면 관련 기록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백제 웅진왕도의 구조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왕성의 입지와 왕궁의 위치를 체계화하지 않는 연구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연구단 내에서 중장기 계획을 위한 분야별 주제를 분석하고<표 6>, 이를 기초로 1차적인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하였다.<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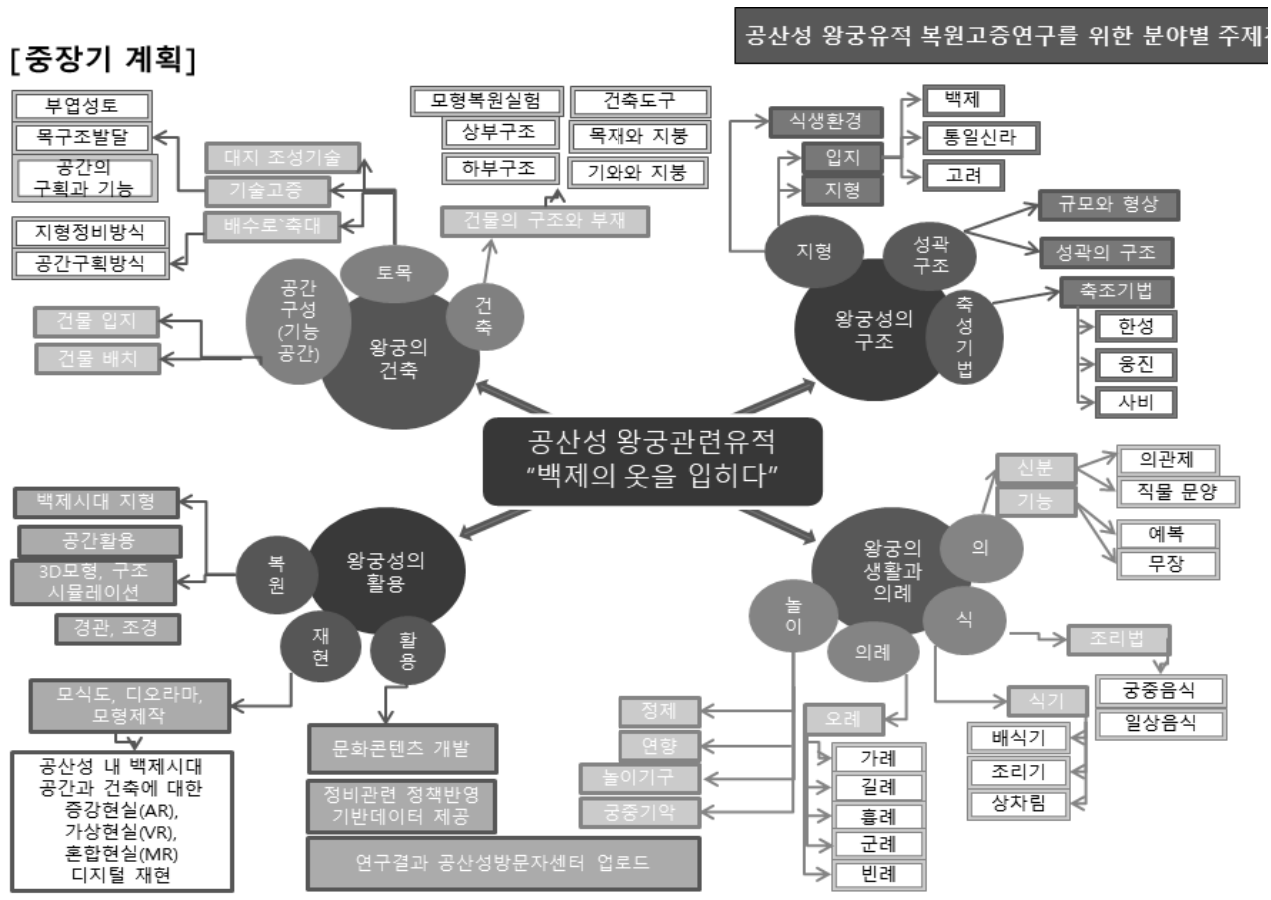


표 6.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를 위한 분야별 주제검토

위의 <표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백제 왕궁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고증을 위해서는 왕궁의 건축에 대한 분석과 왕궁건물만을 복원한다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이는 문화유산을 구성하는 다양한 인문적 요소로 공간과 구조물의 환경과 더불어 정치, 생활, 의례, 기술, 등과 같은 다양한 가치요소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다양한 분석요소 가운데 백제 왕궁 관련 건축유산을 중심에 둔 고증연구의 체계적인 연구계획이 <표 7>과 같이 제시되었다.

표 7. 공산성 항공유적 복원고증연구 중장기 계획(안)

기반연구		심화연구 1-2단계		복원·활용연구
고증복원 기반연구	공간구성과 평면(토목, 평면) 건물의 구조(평면과 위계, 재료)	건축 의장(벽체, 목구조) 건축 의장(지붕, 유물)	공간복원과 모형복원 활용경관 복원	
'18 ~ 19년	심화연구1단계(1~4차)	심화연구2단계(1~4차)	활용연구(2차)	

구분	주제	① 고증연구		② 복원연구	성과품	
		기반연구 (18~19)	공산성 백제항공관련 건물지 복원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 건물지 분석자료집성 공주시가지 고지형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 역사, 문화 연구 자료집성 백제 웅진기 사료 비교연구 공산성 왕성 논의 및 웅진정도배경 웅진도성연구(국가의례 및 제례)
심화연구 1단계 (20~23)	20	공간구성과 평면① (지리, 지형과 평면 배수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산성 내 백제건물지 분포 공간구성 공산성의 입지와 건물지 평면 분석 공간구성 구분 분석 공간활용을 위한 배수체계 분석(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의 공간활용 비교연구 (고대~조선, 한중일) 항공의 공간구조의 규칙 공결중심공간의 구조와 변화 웅진왕도 내 구조 등 각 주제에 대한 역사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D이미지 맵핑①(웅진왕궁성의 지형 모델링) 백제 건물지 공간 정비 재현 복원안 분석 공산성 내 복원 필요 주요공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증연구 성과보고서 1식 공산성 공간평면 배수체계 분석 지형도 1식 공산성 정비 재현 모식도 1식
	21	공간구성과 평면② (공산성 내 백제 항공관련 건물지 대지조성 고증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 건물지의 대지조성 고증연구 공산성 내 백제 건물지의 대지조성 백제 건축의 토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대 건축의 대지조성 비교연구 건물의 대지분석 조, 침, 원지의 구성(고대~조선, 한중일) 한중일 고대 토목건축 대지조성과 기단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반·기초구조 실험고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증연구 성과보고서 1식
	22	건물의 구조① (건물지 공간위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의 평면규모와 중첩양상 평면 공간위계 분석① 백제시대 발굴조사된 목재자료분석(고고자료정리) 백제의 식물자원 분석 고증(고식물, 목재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 내 위계건물의 구조① (고대~조선, 한중일) 공결공사의 건축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시대 건축 구조부재 자료 작성 (기와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증연구 성과보고서 1식

구분	주제		① 고증연구		② 복원연구	성과품
	23	24-25	26-27	28-29		
심화연구 2단계 (24~27)	23	건물의 구조② (건물의 구조와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 부재 고증연구 건물지별 출토 백제 와전 고증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왕궁 건물의 건축부재(목재가공기법) -고대의 기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3D이미지 맵핑④(대지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증연구 성과보고서 1식 3D이미지 맵핑④
	24-25	건축 의장① (벽체와 목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시대 벽체관련 자료의 종합과 비교분석 건물지의 목구조와 의장①(고고학, 고건축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대 건물의 의장(고대~조선, 한중일) -벽체의 축조와 건축 -기초와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벽체의 실험복원(실험고증) 3D이미지 맵핑②(건물지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증연구 성과보고서 1식 3D이미지 복원(벽체, 목구조)
	26-27	건축 의장② (목구조와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지 목구조와 의장②(고고학, 고건축비교) 건물지별 출토유물 분류와 비교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구조와 의장(고대~조선, 한중일) -지붕의 구조와 위계의 변천 -지붕의 구조와 의장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3D이미지 맵핑④(벽체, 목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증연구 성과보고서 1식 모형제작④(벽체, 목구조) 3D이미지 복원(벽체, 목구조)
활용연구 (28~29)	공간복원과 건물지 모형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지 목구조와 의장③(모형제작 고증) 백제시대 목재의 수종분석과 치목,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과 의장 건물의 배치와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3D이미지 복원⑤(건물의 배치와 구조 형상화) 모형제작⑤(건물의 배치와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증연구 성과보고서 1식 모형제작⑤(건물의 배치와 구조) 3D이미지 복원 1차 완성 	

*연구의 진행은 고고학적 자료집성과 분석, 전문가 연구담론, 고증복원자료의 시각화(지형, 건축모형제작, 3D이미지 맵핑)을 위한 방향으로 함.

2) 2020년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 심화연구(I)

심화연구(I)은 ‘공산성 내 고지형환경과 공간구성 평면연구’를 주제로, 공산성 내 지형분석을 통하여 배수체계와 공간고증, 발굴조사 성과분석을 통한 시대별 공간활용에 대한 고증연구, 발굴조사된 유구의 정비에 대한 정책기본구상 제시를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기반연구 진행과정에서 문화유산의 기본 성격과 본질에 대한 충분한 고증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정비복원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공산성 내 백제 활용공간에 대한 지형의 분석과 왕성의 공간활용에 대한 고증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산성이 백제왕성이지만 왕궁의 위치를 정확히 모를 뿐만 아니라, 왕궁의 위치와 형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추정왕궁지와 공북루 남쪽의 왕궁부속시설로 보고된 중요 유적이 있으나, 이들 유적의 상징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공산성 내 지형분석을 통한 공간구성과 평면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련유적의 비교연구를 기초로 유적의 공간적 중요지역을 고증하고자 하였다.〈표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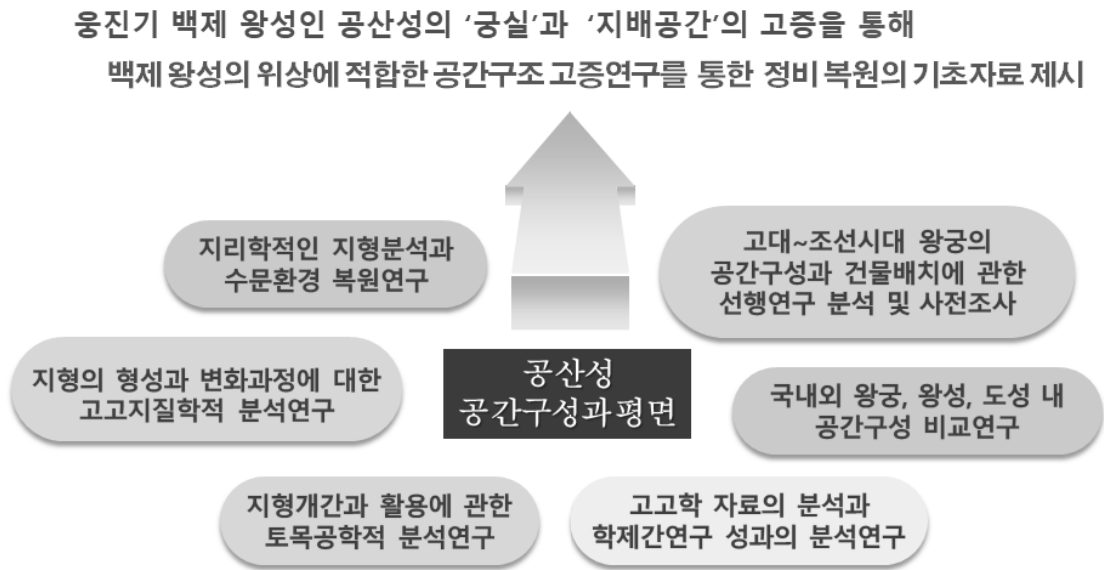


표 8. 2020년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 심화연구(I) 목표

공산성 내 공간구성과 평면연구는 지리학적인 지형분석과 수문환경 복원연구와 지형관련 고고지질학적 분석연구를 통한 토양분포와 지형분석을 기초로 대지와 배수체계의 기본자료를 종합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산성 내 배수로와 대지의 형성관계를 비교할 수 있었으며, 인위적인 지형 개간이 이루어진 지역의 경우 토목공학적인 분석을 함께 병행하였다. 이는 대지와 주변의 배수체계에 대하여 고고학 자료의 분석과 지리학·고고지질학·토목공학이 함께 융합연구를 통하여 분석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2020년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 심화연구(I) 세부계획

순번	도서명	주요내용	
1	공산성연구총서12 공산성 공간구성과 평면연구(1)	• 공산성의 평면구성	-공산성의 입지와 지형 -공산성 발굴조사현황과 대지분석 -공산성 대지분포 기초조사
		• 공산성의 고지형환경분석	-지형형성 변화상 연구
		• 공산성 지형과 배수체계분석	-고지형 수문환경 분석
		• 공산성 공간구성과 평면특징	-공산성 내 배수와 도로 -위계공간의 분석 -위계공간의 정비에 대한 정책제언
2	공산성연구총서13 공산성 공간구성과 평면연구(2) 국내사례 비교연구	• 백제 한성기 왕성의 공간구성과 평면구조	
		• 백제 웅진왕도의 구조와 고구려	
		• 백제 사비기 부소산성의 공간구성과 평면구조	
		• 호남지역 백제 지방도시의 공간구조 비교분석 연구	
		• 고려~조선 궁궐의 공간구조와 평면연구	
		• 조선시대 궁궐의 구성과 전각 배치에 관한 연구	
3	공산성연구총서14 공산성 공간구성과 평면연구(3) 국외사례 비교연구	• 중국 고대(한~남북조) 도성 내 공간구성과 평면구조 비교·검토 연구	
		• 육조 건강성의 공간구성과 구조적 복원연구	
		• 일본 고대 왕궁의 구조와 공간구성 변천 연구	
		• 飛鳥宮の構造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공산성 내 주 출입시설은 웅진왕도에 연결되는 남문인 진남루와 서문인 금서루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약 20만㎡의 대지 모두에서 백제의 인위적인 공간활용이 이루어졌음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초로 백제가 공산성 전체 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공간을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개별적인 유구의 조성시기와 성격에 대한 고증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백제 왕성인 공산성 내에서 중심건물지군으로 쌍수정 일대의 추정 왕궁지 일원(①)과 공북루 남쪽지역 내 5단대지를 중심으로 하는 건물지군(②)이 중심 공간을 구성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특히 백제의 왕성인 공산성 내에서 왕궁관련 유적의 입지로 가장 주목되는 공간에 대한 고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이는 공산성 내 건물지군이 단일 공간으로 입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백제 웅진기 왕성 내 왕궁관련 공간의 정체성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산성 내 중심공간을 기준으로 대지조성과 건축유산의 기초를 구성하는 다양한 고증이 필요하게 되었다.

3) 2021년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 심화연구(II)

2021년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 심화연구(II)’는 ‘공산성 내 백제 왕궁관련 건물지 대지조성 고증연구’를 주제로 하고 있다. 이는 심화연구(I)에서 진행한 ‘공산성 공간구성과 평면’연구에서 확인된 왕궁관련 중요 건물지군에 대한 기초연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백제 왕궁관련 건물지 조성을 위한 대지와 기초조성 방법에 대한 고증연구로, 세부적인 연구계획은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 심화연구(II) 계획

구 분	내 용	고 증 연 구 주 진 전 략	
심화연구 (II)	공산성 내 백제 왕궁관련 건물지 대지조성 고증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성 백제 건물지 대지조성방법 고증(저지대 지반개량 방법 분석) ◇ 고대 건물지 대지조성공법 비교연구 (지반개량- 절토, 성토, 판축) ◇ 고대 건축의 토목구조 분석 (축대, 도로, 배수로 등) ◇ 공산성 백제 건물지의 기반 축조 현황과 비교사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지 축조를 위한 대지조성방법 실험 고증 ◇ 전문가 워크숍 개최 ◇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 종합계획의 점검

위의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고증연구를 통하여 확인한 공간구성에서 중요유적의 입지를 중심으로, 유적의 입지별 대지와 기초조성을 위한 기법을 구체적으로 고증하기 위한 것이다. 고대 건물 조성을 위한 지반개량과 대지조성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공산성 내 백제 건물지의 대지조성 방법을 체계적으로 고증하고, 고대 건축의 기초시설에 대해서는 고고학자료의 분석과 고건축의 융합적 연구를 통한 분석과 비교연구를 통한 고증을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건축물에서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체 건축공정의 10% 이하 부분에 해당한다⁹⁾는 점에 주목할 때, 현재 공산성 내 왕궁관련 유적에 대한 고증연구는 매우 미미한 시작에 불과하다. 공간평면구성을 통해 중심건물지군에 대한 고증을 시도하였으나, 향후 건축물의 기초에 대한 분석에서 조영순서와 중첩된 유물의 분석을 통한 평면구조의 배치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중층의 역사문화층에서 웅진기 문화층을 분류하는 작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내용이다. 이와같은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백제 건축유산의 지상구조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9) 김왕직, 2019, 앞의 논문, 17쪽.

Ⅲ. 고증복원 연구의 향후과제

일반적으로 왕궁은 왕과 왕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돌보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서, 왕의 권력과 위상을 널리 알리는 표지적인 상징물이었다. 따라서 왕궁 안에는 정사를 위한 정무공간, 일상생활을 위한 생활공간, 휴식과 정서를 위한 정원공간 등을 구성하는 각종 건축물들이 자리한다. 이 건축물들은 담으로 둘러싸여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주요 건물들이 회랑을 통해 서로 연결되기도 한다.¹⁰⁾

백제 왕궁의 모습에 관련된 기록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삼국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궁궐관련 기사는 일부 확인된다.〈표〉 그러나 왕궁의 형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다만 온조왕 15년(B.C. 4)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새 궁실을 지었는데 검소하면서도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았다(作新宮室, 儉而不陋, 華而不侈).’는 것을 통해 궁실의 경관을 추론할 수 있다. 반면에 사비기 무왕 35년(634) 왕흥사 준공기사에서 ‘그 절은 강가에 있었으며, 채색 장식이 웅장하고 화려하였다(其寺臨水, 彩飾壯麗)’를 참고할 경우 매우 대비되는 모습이다. 즉 시기차이는 있으나 왕궁의 검소함과 달리 사찰의 장엄함을 추론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백제 왕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는 한성 - 웅진 - 사비기의 어느 곳에서도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백제 웅진왕도의 왕성인 공산성에서 왕궁의 존재를 체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백제 왕궁관련 역사적 공간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증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누적된 중층의 역사를 이어온 공산성을 중심으로 ‘백제 왕궁관련 유적에 대한 고증연구’를 통하여 ‘역사적 공간의 진정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즉 고대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구의 존재를 구체화하여 이를 보존하고 정비할 수 있다면, 향후 보존과 활용에 있어서 유적의 역사성과 진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우리나라 고대 왕도의 대부분 유적이 그러하듯이, 지상구조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고고학 유적지라는 한계가 있다.

“진정성과 관련해서, 고고학 유적인 역사적인 건물이나 지역의 재건은 특별한 경우에만 정당화할 수 있다. 재건은 완전하고 상세한 자료를 기반으로 할 때에만 가능하고, 추측에 의한 재건은 안된다.” (제86항, 세계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 UNESCO, 2015)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유산분야에서 재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충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고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유적 가운데 지상구조물은 목조문화재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건축물의 특성은 유물과는 달리 그것이 최초로 만들어진 이후에 그 상태 그대로 형상이나 양식이 고정된 채로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다. 특히 고대유적의 경우 가시적 실체가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역사적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훼손되어 고도의 역사적 골격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도의 역사적 진정성은 가시적 실체가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같은 과거 완결

10) 한성백제박물관, 2014, 『백제의 왕궁』, 특별전 도록, 38쪽.

적인 것이 아니라, 발굴을 통해 실체를 확인하고 회복해야 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¹¹⁾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 연구의 진행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가시적이지 않은 유산에 대한 재건과 복원을 통한 특별한 해설법과 지역 경제 호라성화를 위한 투자, 유산의 정체성 회복은 점점 일반적인 복원의 이유가 되고 있다.¹²⁾

고고학자 윌리엄 라이프는 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들이 내재된 문화유산을 통해 인간은 인류의 영속성을 확인하게 되고, 보다 큰 범위에서 인류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되므로 인류 공동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미국 게티연구소의 가치에 관한 보고서(1999~2002)에서는 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들을 어떻게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는데, 다양한 가치들은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유동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즉 문화유산의 가치는 그것을 평가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적·사회적 성향에 따라 평가방식이나 선호도, 개별가치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대적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었다.¹³⁾

이에 단계적인 고증연구를 통하여 공산성 내 왕궁관련 건축유산의 대지와 공간활용을 위한 기초적인 고증과 정책활용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고대국가 백제의 왕성으로서 공산성이 보유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중심지로서의 역사적 가치(①)와 학술적 가치(②), 그리고 백제고도 공주의 역사성을 고양시키는 기념적인 상징가치(③), 문화경관의 체감과 체험교육, 역사문화 정보의 거점기능, 관광 네트워크의 거점지를 형성하는 경제적 가치(④), 도심 속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서의 정서적 공간가치(⑤) 등의 다양한 가치를 보전하고자 하는 전제에 기초한다. 따라서 공산성의 복원고증연구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고유한 가치의 고증을 통한 완전성과 역사·교육·관광을 포함한 경제적 가치를 대중이 공유할 수 있는 복원고증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고증연구를 통하여 유산의 구조와 가치에 대한 기초적 분석을 통하여 유산의 해석체계를 확립하고 전시활용을 위한 기본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명확하지 않은 유적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최대한 신중하게 확보하여 고증함으로써, 단순한 건축물의 복원이 아니라 찬란한 백제문화의 진정성과 가치고증, 나아가 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역사·학술·상징적 가치 이외에 경제적 가치와 정서적 공간가치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복원고증 연구의 과정과 결과물을 개방하고, 시민의 참여와 공유의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역사적 가치를 확산하고, 고증연구와 정비·복원, 운영지원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1) 채미옥, 2017, 「세계문화유산과 고도보존사업의 연계 필요성과 과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국제학술대회-동아시아의 세계유산 그리고 고도』.

12) 디누 봄바루, 2015, 「유적·건물·지역의 재건 및 보존개념」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보존관리 방안』,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충남역사문화연구원, 50쪽.

13) 이수정, 2011, 「문화유산 보존원칙 수립을 위한 가치의 정의 및 방법론에 대한 시론적 연구」 『문화재』 44, 국립문화재연구소, 15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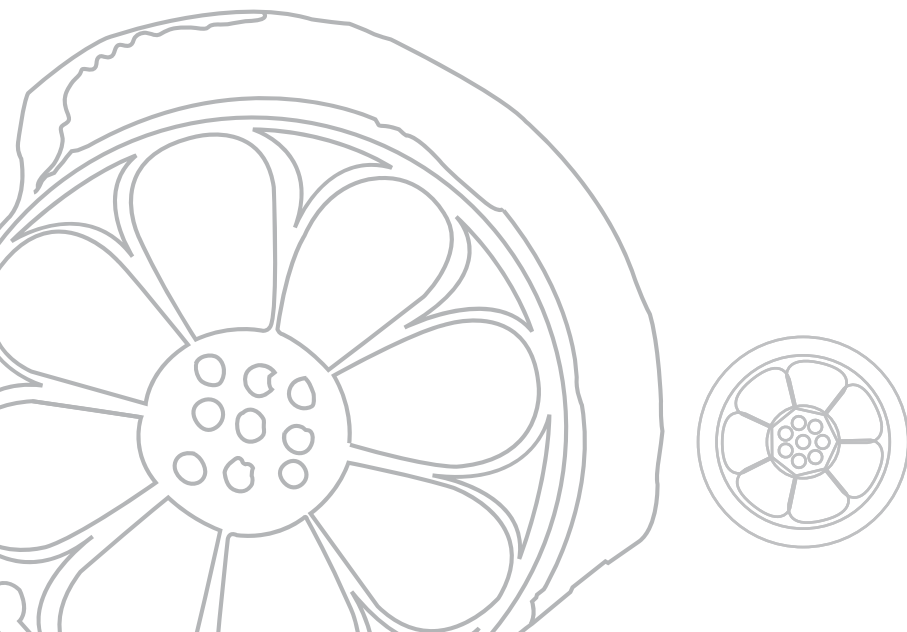
발표 2

공산성 왕궁유적 고증복원연구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료

이현숙

공주대학교박물관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현황과 과제

2021. 5.

공주대학교박물관
이현숙

Contents

01 머리말

0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추진현황

- 1) 추진경위
- 2) 추진현황과 계획
- 3)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

03 복원고증연구의 향후과제

01 머리말

1. 머리말

- 공주는 백제가 475년 웅진으로 천도하면서 백제 왕도로서의 역사적 실체가 구체화된 고도
- 백제 이래 통일신라 ~ 조선을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역사의 터전으로 활용되면서 변형
- 백제 왕궁과 관련된 관청지 등의 공간구조 전모를 방문객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한계

- 무령왕릉과 공산성은 일찍이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1963. 1. 21.),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등재됨(2015. 7.)
- 공산성은 - 부여 관북리유적,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유적 등과 함께 왕성과 왕궁 중심의 통치공간으로 주목되었으며
- 왕궁과 도성 건설에 판축공법과 부엽공법, 토심석축공법 등 다양한 기법의 토목, 건축기술이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문화적 전통과 문명에 관한 독보적 증거를 인정받았음

1. 머리말

- 공산성을 비롯한 백제역사유적지구 내 유적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등과 기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해 보호
- 고도보존계획상의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는 세계유산지구보다 넓은 지역에 지정
- 고도보존계획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관리와 함께 '문화경관'조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님. 즉 단위 유적의 보존만이 아니라 그 보다 넓은 지역인 고도 지역 전체의 역사적 골격 보존 및 회복·관리를 대상

-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는 백제왕도 핵심유적별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 2018 ~ 19년에 진행된 기반연구에 기초하여 공산성 내 백제 왕궁지의 존재에 대한 고증연구와 복원을 위한 단계별 심화연구를 추진 중
-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 연구의 추진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검토한 후, 문화유산의 가치에 중점을 둔 복원고증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함

0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추진현황

- 1) 추진경위
- 2) 추진현황과 계획
- 3)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추진현황

1) 추진경위

■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

- 고대 동아시아에서 건축물과 건축 기술의 발전을 가져온 교류가 백제의 성곽 건축, 왕릉, 석탑, 건축물의 기반에 나타나고 있어서,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평가기준(ii)를 충족

- 백제왕조의 독특한 문화, 역사, 종교와 예술의 뛰어난 증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이라는 평가기준(iii)을 충족

- 완전성과 문화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진정성, 나아가 지속적인 보존관리계획에 대한 다각도의 평가에서도 인정

■ 고도보존계획에서의 고도

- '한 왕조의 국가 통치의 흔적과 기억, 왕경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흔적과 유무형의 역사적·정치적 흔적을 갖고 있는 곳'으로,

- 단위유적의 보존만이 아니라, 고도지역 전체의 역사적 골격 보존과 회복·관리를 대상으로 함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추진현황

1) 추진경위 ■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관련 계획

구분	계획내용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신청 보존관리계획-공산성-(2013)	백제가 웅진에 도읍할 당시의 왕성인 웅진성으로, 웅진도읍기의 백제 생활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독보적인 공산성의 역사성 회복 및 역사적 경관 보존관리
공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2014)	역사적 실체와 고도의 공간적 역사 골격회복으로 역사문화환경이 제고된 고품격 공주로 조성 -공산성의 왕성 이미지 부각 및 왕궁지유적 가시화 -서사적 고도골격 회복을 위한 공산성 성격의 복원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공주- (2015)	공산성 왕궁지 유적 가시화사업 -백제 왕궁지 유적을 웅진왕도의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왕궁유적의 남겨진 실체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방안 연구 및 수립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공주- (2016)	공산성 왕궁지유적 가시화사업 -기존의 왕궁지유적을 재정비하고 백제고도인 웅진왕도의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 -추가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백제 왕궁의 규모와 실체를 알 수 있는 유적이 발견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웅진 왕궁의 형상을 입체적, 상징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웅진왕성 유적공원 조성사업 -역사유적 중 일부를 보존하고 복원 및 재현하되, 입체적 가시화를 통하여 시각적, 공간적으로 역사유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
백제왕도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 기본계획(2015)	백제왕도의 개념 및 범위설정 -학술적인 발굴조사와 연구, 그리고 복원(2017~2038) - 추정왕궁지 재발굴조사, 백제성벽 노출전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 (2018)	웅진백제 왕궁성 공산성의 위상제고와 골격 회복 -왕궁지와 왕궁부속시설지, 성곽 등 주요 유적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 및 고증실시 -주요 유적의 본래 성격과 기능을 인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복원 또는 재현을 위한 발굴조사 및 고증 -연구조사 결과와 역사적 사실 및 기록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기법 모색 (ICT기술활용, 스토리텔링 등)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추진현황

1) 추진경위

-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준비단계인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공산성 내 백제 왕궁관련 유적의 진정한 가치와 경관회복을 위한 고증연구계획이 이루어졌음
- 웅진백제의 정치·문화·경제 중심지로서 왕도의 장소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공산성 내 백제 왕궁관련 유적과 유구에 대한 가치화를 위한 다양한 복원·정비를 목적
- 역사 자산의 가치 증대와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방문객 등의 다양한 주체가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기초한 것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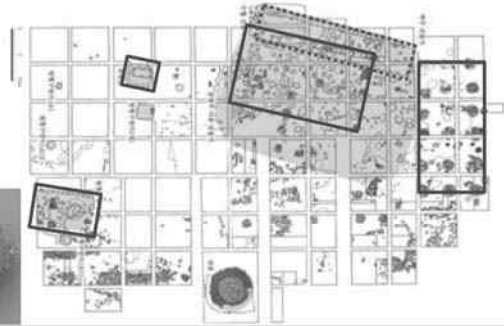
2) 추진현황과 계획 (1) 공산성의 연구와 조사현황

구분	명 칭	특 징
1910년 이전	백제-熊津城, 居拔城, 固麻城 통일신라-熊川城 고려-公山山城, 公州山城, 조선-雙樹山城	-백제왕성, 사비천도 후 북방성, 무왕 31(630)년 이어지, 의자왕(660) 피난지 -통일신라 김현창의 난(822) 거점지 -고려시대 대몽항쟁 입보용 성(고려사절요) -조선시대 감영, 군영
일제강점기~1980 이전	산성공원, 공산성	-1913년 산성공원 -1917년 세키노(關野 貞) 공산성 조사 -1932년 성내 유람도로 개설당시 가루베지은(輕部慈恩)의 현장조사 -1963년 사적 제12호 지정 -1969년 말 항공촬영 -1978년 문화유적 지표조사
1980~2000 이전	공산성	-1980년 민아루지·임류각지·동문지·장대지 등 건물지 중심의 발굴 -1985~86년 추정왕궁지 발굴조사 -1982~83년, 1993~94년 영은사 앞 백제연못 -1987~1988년 동쪽 성벽구간 조사
2000년대 이후	공산성	-공복루 남쪽대지와 추정왕궁지 중심 조사 -봉괴성벽구간에 대한 조사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2015. 7.)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 진행 -공산성 발굴조사마스터플랜 수립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추진현황

2) 추진현황과 계획 (1) 공산성의 연구와 조사현황

발굴조사 후 정비된 백제, 조선시대 유구
정비에 앞서 명확한 고증이 이루어지지 못함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추진현황

2) 추진현황과 계획 (1) 공산성의 연구와 조사현황



발굴조사 후 복원된
임류각지

복토된 공복루 남쪽
왕궁관련 건물지군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추진현황

2) 추진현황과 계획 (1) 공산성의 연구와 조사현황



- 웅진기 백제 왕궁의 위치: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왕성으로서 웅진성의 존재는 인정.
- 2015년 7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당시 공산성은 왕성과 왕궁으로 구성된 통치공간에 포함
- 2018년부터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가 추진, 2020년에는 장기적인 발굴조사 마스터플랜이 수립.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추진현황

2) 추진현황과 계획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 추진현황

- 공산성 내 백제 왕궁관련 건물지의 학술적 고증연구를 기초로 종합적인 복원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8~2029년에 이르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연구 사업
- 주요 목적은 공산성에 대해 심도 있는 고증 연구를 통하여 역사성과 진정성을 기초로 복원정비의 타당성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음
-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 연구'는 공주시의 요청에 의해 추진되었고, 공주시와 국립공주대학교박물관이 협정을 체결하여 진행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추진현황

2) 추진현황과 계획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 추진현황

■ 복원고증연구의 한계

- 공산성 내 백제 왕궁관련 유구는 지상의 구조물이 남아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헌기록도 매우 열악하여, 구체적인 시각자료가 없는 백제 왕궁관련 유적에 대한 복원고증연구를 통한 유적의 진정성과 보존가치를 체계화하는데 많은 한계
- 건축유적의 복원고증은 주로 건축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왔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설계와 정비복원을 위해서는 건축분야 중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
- 다만, 그동안 ‘백제 웅진기 왕성 내 왕궁의 문화경관을 회복’하는 계획이 지속되었음에도, 왕성 내 왕궁의 위치와 구조, 웅진기 백제 건축유산의 형태와 층위 등에 대한 고증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 백제 왕성 공산성에서 치밀하게 고증하지 못한 유적의 진정성과 가치에 대한 연구가 집중된 이후, 고증복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 연구의 확장이 이루어질 필요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추진현황

■ 왜 복원고증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 공산성은 백제 웅진기 왕성으로서 사적이며,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대표유적임. 또한 백제 웅진기 국가 최고지배층의 거소인 왕궁과 지배공간이 존재하는 왕성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으로 평가
- 공산성이 웅진기 백제 왕성이라는 국내외의 문헌기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왕궁의 위치와 구조에 대해서는 발굴 조사된 지하의 유구를 제외하면 거의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에 따라 왕궁의 위치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현재 공산성은 조선~근대의 유구를 중심으로 그 형상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백제의 모습을 거의 살펴볼 수 없음.
- 백제 왕성과 왕궁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상의 구조물은 거의 없는 상태
- 공산성의 백제 왕성으로서 성격과 구조에 대한 고증연구를 통하여 ‘진정성 있는 백제 왕성의 문화경관 회복’과 백제 웅진왕도의 역사적 가치를 구체화할 필요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추진현황

■ 무엇을 복원고증할 것인가?

- 공산성의 가치
 - 고대국가 백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중심지로서의 역사적(①) 학술적 가치(②),
 - 백제고도 공주의 역사성을 고양시키는 기념적인 상징가치(③),
 - 문화경관의 체감과 체험, 역사문화 정보, 관광 네트워크의 거점지인 경제적 가치(④),
 - 도심 속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서의 정서적 공간가치(⑤) 등
- 그러나 발굴조사 이후 복토하여 잔디밭으로 덮여 있는 주요 유구에서 역사적 실체를 상징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일반 관람객에게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해설과 소개법이 필요
- 따라서 문화유산으로서 공산성의 고유한 가치 고증을 통한 완전성과 역사·교육·관광을 포함한 경제적 가치를 대중이 공유할 수 있는 복원고증연구를 지향할 필요
- 공간의 진정성이 높은 공산성 내 백제 왕성과 왕궁의 구조를 재현함으로써 방문객들이 고대 백제를 느낄 수 있는 경관을 갖춘다면, 활용도 높은 역사문화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추진현황

■ 어떻게 복원고증할 것인가?

- 공산성이 백제 왕성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웅진왕도 내 왕궁의 위치에 관한 문제, 그리고 공산성의 공간활용 등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유적의 성격에 대한 고증연구의 필요가 있음
- 왕궁의 격에 맞는 건물지의 배치와 공간구조, 백제 지상건축의 형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가 희박한 점, 그리고 발굴 조사된 백제 건물지의 중복에 따른 층위 구분에 관한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단위 유구에 대한 복원고증연구에서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음
-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역사 유적은 기초에 해당하는 적심부분이나 기단과 초석 등 건축 공정의 10%이하 부분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어떤 가치를 회복시킬 것인지의 논의에 따라, 또 유적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건물 복원은 논의될 수 있음.(김왕직, 2019)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추진현황

■ 어떻게 복원고증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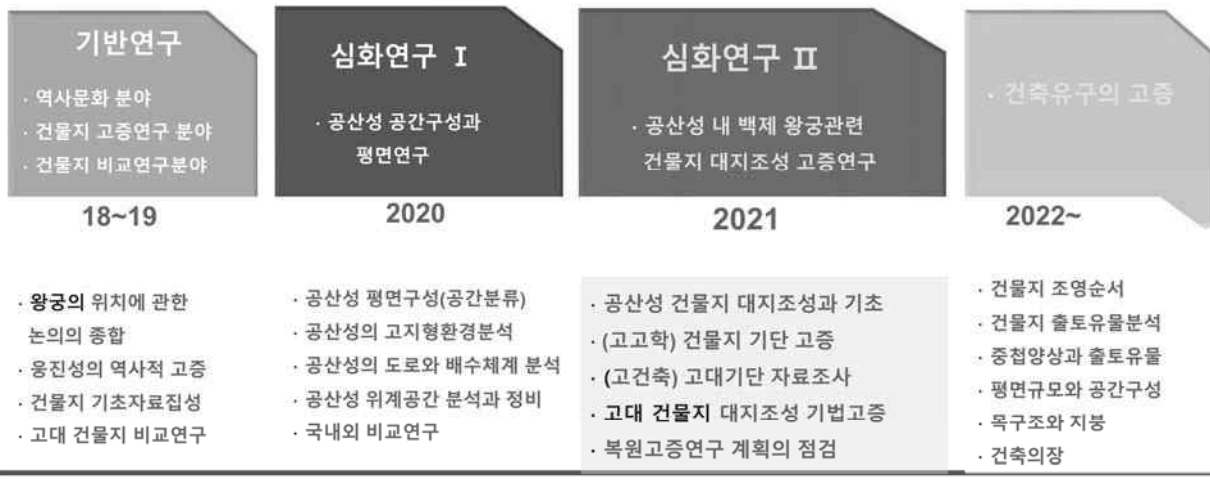
- 공산성은 동일지역에서 중층의 문화층을 이루거나 지상의 유적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한계
- 따라서 대상 유적의 역사성, 학술성, 장소성에 대한 고증을 통하여 백제 왕궁관련 건축유산의 복원에 대한 범위와 방법에 대한 내용이 결정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구조물을 살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고대 건축유산의 경우, 보존 - 수리 - 보강 - 수복 - 이전 - 재현 - 복원의 개념이 있으며, 지상의 구조물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주로 재현과 복원의 개념을 주목할 수 밖에 없음.(1964 베니스헌장, '~복원은 추측이 시작되는 순간 멈춰야 한다', 1994년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의 다양성 존중)
- 기존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신청서에 제시된 관리계획을 보면 건조물의 복원정비, 회복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계유산지구 내 일부 유산의 부분적 회복, 복원, 재건에 대한 가능성이 일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추진현황

3)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



· 백제왕도 핵심유적별 보존관리 종합계획(2018)에 기초하여 단계적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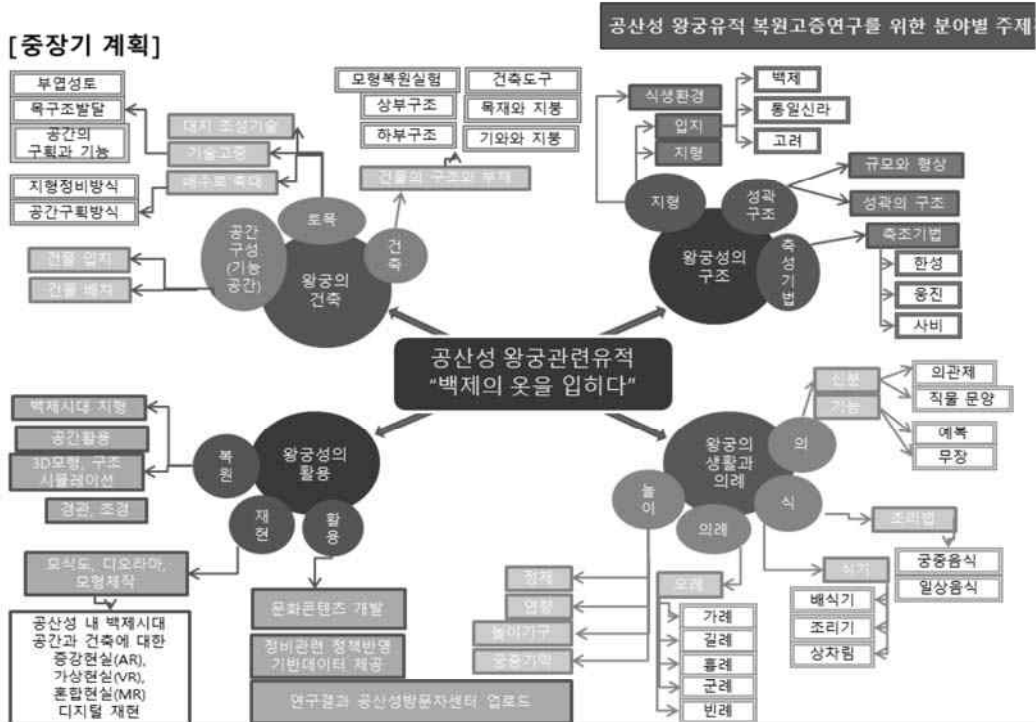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추진현황

국내 복원고증연구가 이루어지 유적 현황: 성격이 명확함

구분	추진연도	성격	비고
경주 불국사	1969~1973년 (5개년)	사찰	통일신라
경주 임해전지 복원	1977~1980년(4개년) 2010	궁궐	통일신라
경주 월정교 복원	1975~1988 (13년) 2006~2012	교각	통일신라
5대궁 복원정비 사업: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1985년~2009년(25년)	궁궐 의궤, 기록, 발굴	조선
화성행궁	1993~2010년(18개년)	화성성역의궤	조선
익산미륵사지 동탑복원	1988~1993년(6개년)	사찰, 서탑자료 참고	백제
익산 미륵사지 복원고증연구	2008~2021(13년)	사찰	백제
황룡사지 복원고증연구	2005~현재	사찰	신라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추진현황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를 위한 분야별 주제검토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추진현황

3)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 2018~19년 복원고증 기반연구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추진현황

3)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 2018~19년 복원고증 기반연구

중장기 계획	역사문화연구	건물지 고증연구	건물지 비교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산성 백제왕궁관련 건물지 복원 기본계획을 위한 기반연구 방향설정 향후 고증복원연구를 통한 복원 정비방향의 설정을 위한 심화연구와 단계별 고증연구 주제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웅진기 백제 왕도와 왕궁 기초자료 집성 웅진백제 문화상 고증 문헌자료의 한계 극복을 위한 자료집성과 웅진기 왕궁의 위치고증연구 웅진정도의 역사적배경 고증연구 한중일 고대 국가의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산성 백제 왕궁관련 유적의 고증연구를 위한 백제 건물지 자료집성 공산성 내 백제 건물지의 분포와 공간활용 고증을 위한 지형분석과 웅진 왕도의 고지형분석 건물지자료집성-건축유구 연구현황분석 - 실험복원 -향후 고증복원 계획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산성 왕궁유적 비교를 위한 한중일 고대 건축 유구 복원자료 수집 한중일 고대 도성 내 건축물 복원관련 자료 분석 고대 건물지 복원과정과 활용방안의 검토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 중장기 계획(안)

구분	주제	① 고증연구	② 복원연구	성과품
기반연구 (18~19)	공산성 백제왕궁관련 건물지 복원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 역사, 문화 연구 자료집성 백제 웅진기 사료 비교연구 공산성 왕성 논의 및 웅진정도배경 웅진도성연구(국가의례 및 제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중일 고대 건물지복원자료 비교 분석연구 공산성 왕궁관련유적복원고증을 위한 마스터플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증연구 결과보고서 1식 공산성 정밀측량 백제 건물지 검증 모형 제작 공산성과 웅진도성의 지형 모식도 작성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추진현황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 중장기 계획(안)

구분	주제	① 고증연구	② 복원연구	성과품	
심화연구 1단계 (20~23)	20 공간구성과 평면① (지리지형과 평면 배수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산성 내 백제건물지 분포 ●공간구성 ●공산성의 입지와 건물지 평면 분석 ●공간구성 구분 분석 ●공간활용을 위한 배수체계 분석 (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왕궁의 공간활용 ●비교연구(고대~조선, 한중일) - 왕궁의 공간구조의 규칙 - 궁궐중심공간의 구조와 변화 - 용진왕도 내 구조 등 각 주제에 대한 역사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D이미지 맵핑①(용진왕궁성의 지형모델링) ●백제 건물지 공간 정비 재현 ●복원안 분석 ●공산성 내 복원 필요 주요공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증연구 성과보고서 1식 ●공산성 공간평면 배수체계 분석 지형도 1식 ●공산성 정비 재현 모식도 1식
	21 공간구성과 평면② (공산성 내 백제 왕궁관련 건물지 대지조성 고증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 건물지의 대지조성 고증연구 ●공산성 내 백제 건물지의 대지조성 ●백제 건축의 토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대 건축의 대지조성 비교연구 - 건물지 대지분석 - 한중일 고대 토목건축 - 대지조성과 기단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반·기초구조 실험고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증연구 성과보고서 1식
	22 건물의 구조① (건물지 공간위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의 평면규모와 중첩양상 ●평면 공간위계 분석① ●백제시대 발굴조사된 목재자료 분석(고고자료정리) ●백제의 식물자원 분석 고증 (고식물, 목재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왕궁 내 위계건물의 구조① (고대~조선, 한중일) - 궁궐공사의 건축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시대 건축 구조부재 자료 집중(기와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증연구 성과보고서 1식
	23 건물의 구조② (건물의 구조와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 부재 고증연구 ●건물지별 출토 백제 외전 고증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왕궁 건물의 건축부재(목재가공기법) - 고대의 기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3D이미지 맵핑①(대지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증연구 성과보고서 1식 ●3D이미지 맵핑①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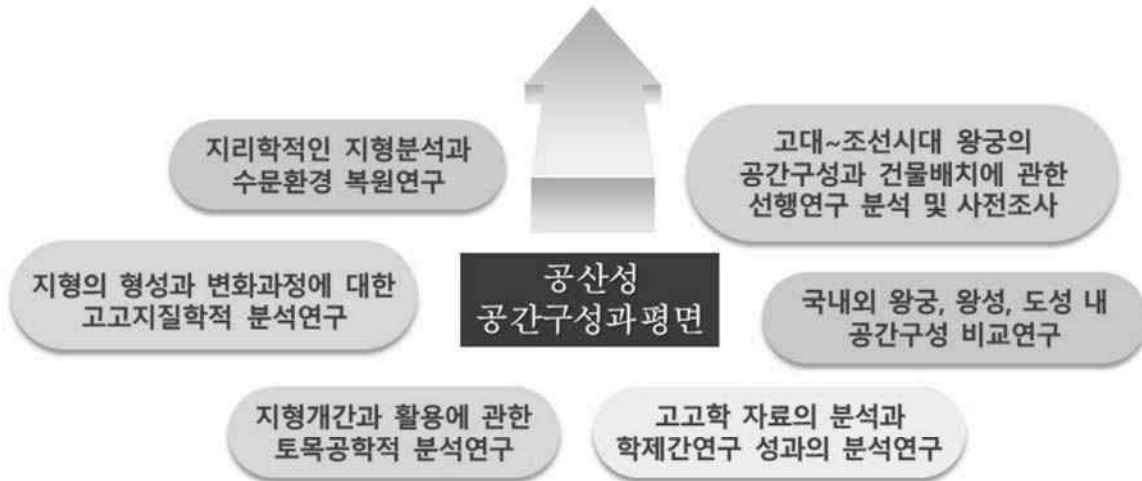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 중장기 계획(안)

구분	주제	① 고증연구	② 복원연구	성과품	
심화연구 2단계 (24~27)	24-25 건축 의장① (벽체와 목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시대 벽체관련 자료의 종합과 비교분석 ●건물지의 목구조와 의장①(고고학, 고건축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대 건물의 의장(고대~조선, 한중일) - 벽체의 축조와 건축 - 기초와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벽체의 실험복원(실험고증) ●3D이미지 맵핑②(건물지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증연구 성과보고서 1식 ●3D이미지 복원(벽체, 목구조)
	26-27 건축 의장② (목구조와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지 목구조와 의장②(고고학, 고건축비교) ●건물지별 출토유물 분류와 비교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구조와 의장(고대~조선, 한중일) - 지붕의 구조와 위계의 변천 - 지붕의 구조와 의장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3D이미지 맵핑③(벽체, 목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증연구 성과보고서 1식 ●모형제작①(벽체, 목구조) ●3D이미지 복원(벽체, 목구조)
활용연구 (28~29)	28-29 공간복원과 건물지 모형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지 목구조와 의장③(모형제작 고증) ●백제시대 목재의 수종분석과 치목,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과 의장 ●건물의 배치와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3D이미지 복원④(건물의 배치와 구조형상화) ●모형제작⑤(건물지 배치와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증연구 성과보고서 1식 ●모형제작⑤(건물의 배치와 구조) ●3D이미지 복원 1차 완성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추진현황

3)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 2020년 복원고증 심화연구(I)

웅진기 백제 왕성인 공산성의 '궁실'과 '지배공간'의 고증을 통해
백제 왕성의 위상에 적합한 공간구조 고증연구를 통한 정비복원의 기초자료 제시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추진현황

3)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 2020년 복원고증 심화연구(I)

순번	도서명	주요내용	
1	공산성연구총서12 공산성 공간구성과 평면연구(1)	•공산성의 평면구성	-공산성의 입지와 지형
		•공산성의 고지형환경분석	-공산성 발굴조사현황과 대지분석 기초조사
		•공산성 지형과 배수체계분석	-지형형성 변화상 연구
		•공산성 공간구성과 평면특징	-고지형 수문환경 분석
2	공산성연구총서13 공산성 공간구성과 평면연구(2) 국내사례 비교연구	•백제 한성기 왕성의 공간구성과 평면구조	-공산성 내 배수와 도로
		•백제 웅진왕도의 구조와 고구려	-위계공간의 분석과 정비에 대한 정책제언
		•백제 사비기 부소산성의 공간구성과 평면구조	
		•호남지역 백제 지방도시의 공간구조 비교분석 연구	
		•고려~조선 궁궐의 공간구조와 평면연구	
		•조선시대 궁궐의 구성과 전각 배치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 궁궐 후원의 성격과 후원 다용도 공지의 의미	
3	공산성연구총서14 공산성 공간구성과 평면연구(3) 국외사례 비교연구	•중국 고대(한~남북조) 도성 내 공간구성과 평면구조 비교·검토 연구	
		•육조 건강성의 공간구성과 구조적 복원연구	
		•일본 고대 왕궁의 구조와 공간구성 변천 연구	
		•飛鳥宮の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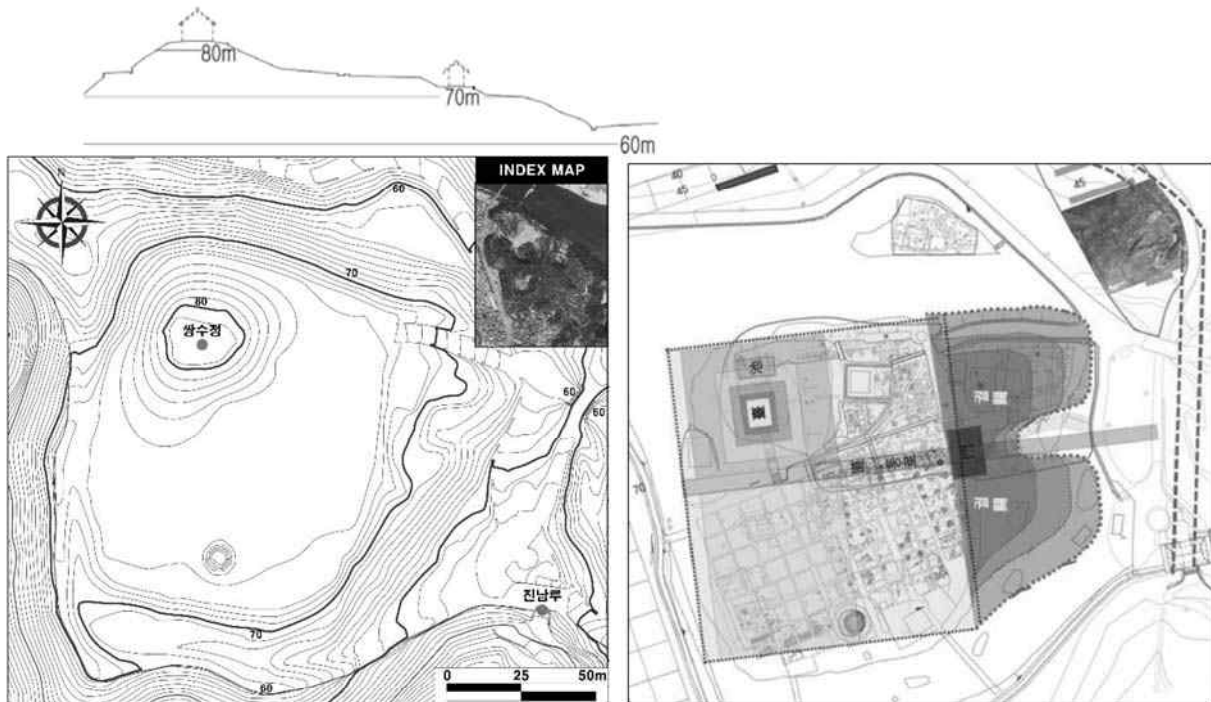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추진현황

3)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 2020년 복원고증 심화연구(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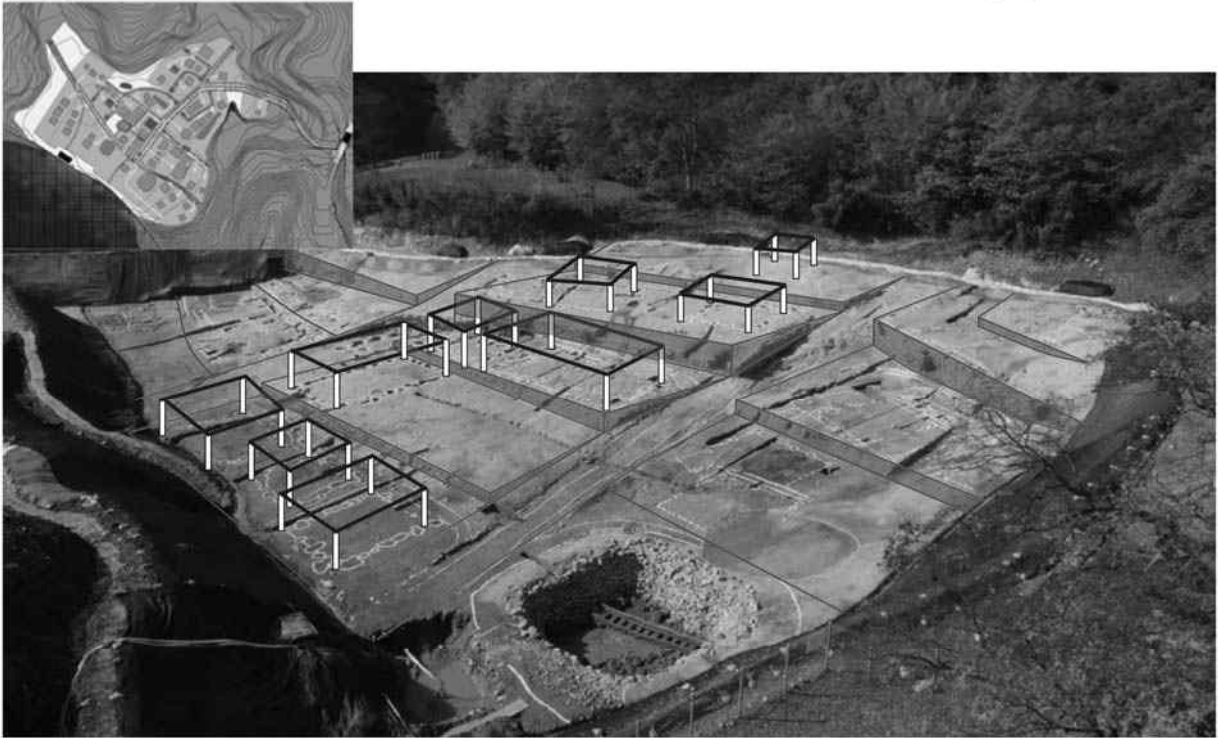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추진현황

3)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 2020년 복원고증 심화연구(I)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추진현황

3)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 2020년 복원고증 심화연구(I)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추진현황

2)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 추진현황과 계획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고증 심화연구(II) 계획

구 분	내 용	고 증 연 구 주 진 전 략	
심화연구 (II)	공산성 내 백제 왕궁관련 건물지 대지조성 고증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성 백제 건물지 대지조성방법 고증(저지대 지반개량 방법 분석) ◇ 고대 건물지 대지조성공법 비교연구 (지반개량- 절토, 성토, 판축) ◇ 고대 건축의 토목구조 분석 (축대, 도로, 배수로 등) ◇ 공산성 백제 건물지의 기반 축조 현황과 비교사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지 축조를 위한 대지조성방법 실험 고증 ◇ 전문가 워크숍 개최 ◇ 왕궁유적 복원고증연구 종합계획의 점검

3. 복원고증연구의 향후 과제

- 일반적으로 왕궁은 왕과 왕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돌보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서, 왕의 권력과 위상을 널리 알리는 표지적인 상징물이었음.
- 따라서 왕궁 안에는 정사를 위한 정무공간, 일상생활을 위한 생활공간, 휴식과 정서를 위한 정원공간 등을 구성하는 각종 건축물들이 자리함

- 온조왕 15년(B.C. 4)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새 궁실을 지었는데 검소하면서도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았다(作新宮室, 儉而不陋, 華而不侈)'는 것을 통해 궁실의 경관을 추론할 수 있다.
- 반면에 사비기 무왕 35년(634) 왕흥사 준공기사에서 '그 절은 강가에 있었으며, 채색 장식이 웅장하고 화려하였다(其寺臨水, 彩飾壯麗)'를 참고할 경우 매우 대비되는 모습

- 백제 웅진왕도의 왕성인 공산성에서 왕궁의 존재를 체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백제 왕궁관련 역사적 공간의 진정성에 대한 고증이 진행되고 있음

3. 복원고증연구의 향후과제



○ 장소의 진정성 이외에 지상에서 백제의 문화유산을 느낄 수 있는 자료는 대부분 매장유구

3. 복원고증연구의 향후과제

○ 백제시대 건물지 자료-궁궐, 관아유적
도로, 구획, 규격화된 건물배치



한성-풍남, 몽촌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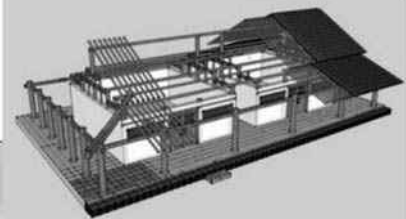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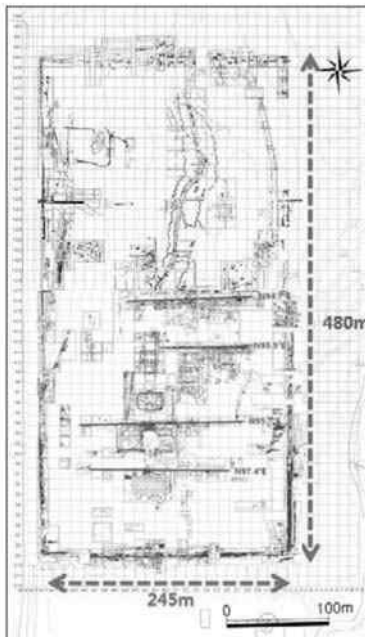


사비도성



3. 복원고증연구의 향후과제

○ 백제시대(웅진, 사비기) 건물지 자료 - 왕궁유적



3. 복원고증연구의 향후 과제

- 고증연구를 통하여 유산의 구조와 가치에 대한 기초적 분석을 통하여 유산의 해석체계를 확립하고 전시활용을 위한 기본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명확하지 않은 유적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최대한 신중하게 확보하여 고증함으로써, 단순한 건축물의 복원이 아니라 찬란한 백제문화의 진정성과 가치고증, 나아가 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나아가 역사·학술·상징적 가치 이외에 경제적 가치와 정서적 공간가치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필요함.
- 이에 복원고증 연구의 과정과 결과물을 개방하고, 시민의 참여와 공유의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역사적 가치를 확산하고, 고증연구와 정비·복원, 운영지원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좌장] 권오영

서울대학교

[토론자] 김상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왕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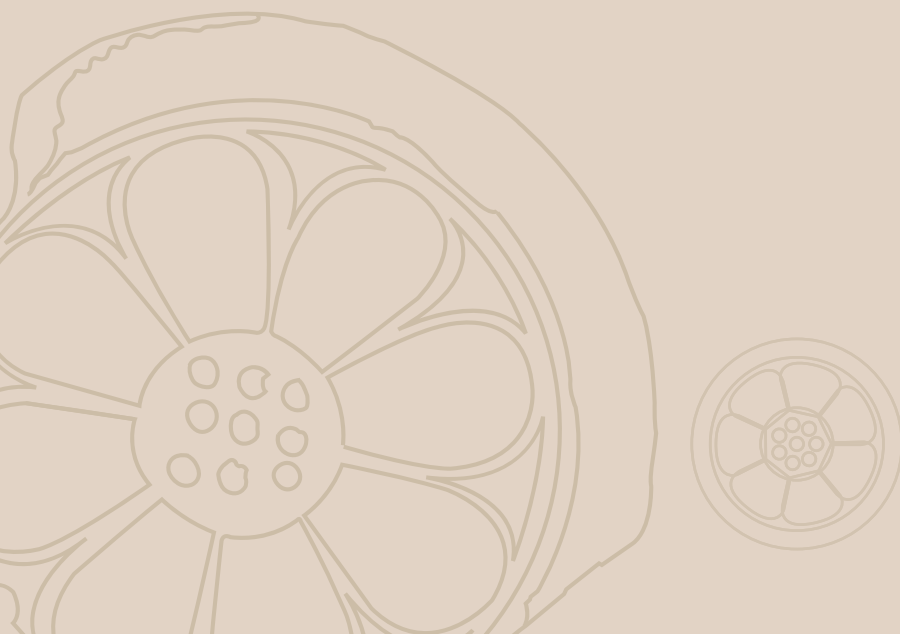
명지대학교

장헌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주성

국립문화재연구소



황룡사복원정비 고증연구의 과정과 과제

- 토론문 -

김상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고증연구의 대표 사업, 황룡사복원정비 고증연구

2005년 시작된 황룡사복원정비사업은 16년이 지나는 현재에 이르기 까지 수십 권의 연구보고서와 논문, 그리고 중문과 남회랑의 IT기술을 이용한 복원계획 등 괄목할 만한 실적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다년간의 연구과정을 통해 1차 연구자료의 확보, 고고학과 역사학, 미술사학 등과의 학제 간 연구, 매우 부족하였던 고대건축 전공자의 배출 등 고증연구의 학술적 성과와 기여 또한 뛰어난 결과를 도출하였다. 황룡사복원정비사업의 시행은 경주시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경주시와의 협약을 통해 국가기관 대행사업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익산시의 미륵사지 고증연구와 공주시의 공산성 고증연구와 같은 방식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고증연구가 여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여타 다양한 사업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제왕도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추진단의 주최로 복원고증연구의 진단과 방향제시 제목으로 정책연구포럼이 준비되었다. 이에 본고는 황룡사 복원정비 고증연구과정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서효원학예사의 발표에 대한 고증연구 진행 중에 나타난 과정설명과 과제, 그리고 환경개선에 대한 발표를 바탕으로 한 몇 가지의 궁금증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1. 우선 그림1의 황룡사복원정비사업의 과정과 단계별 주체를 살펴보면, 고증연구복원정비계획-계획심의-기본설계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실시설계-설계심의-복원정비시행은 경주시가 주체로 하여 사업을 진행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현재 문화재분야에서는 기본계획을 통한 예산확보, 기본설계·실시설계를 통하여 사업시행이라는 과정을 주로 거치게 되는데, 본 사업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기본계획, 즉 복원정비계획과 기본설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되어 매우 바람직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실시설계에서 복원정비시행의 과정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고 사업시행에 참여하는가에 질문을 드리고 싶다.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은 경주시가 시행하게 된다. 국가기관이므로 조달을 통한 설계와 공사, 그리고 감리가 이루어진다. 기본설계에 이르는 국립

문화재연구소의 고증연구기간은 연구의 질과 양에 따라 어느 정도 시간의 확보가 고려된다고 하지만, 실시설계에서 공사완료까지의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이 존재한다. 만약 실시설계에서 공사완료 시 까지 기본설계의 문제로 인한 공사 중단과 설계변경이 요구될 때 감리의 역할이 물론 있겠지만,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어느 정도의 역할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현 연구단계에서 공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는지,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면 설계사무소와 보수기술자 등 현장전문가와와의 참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도 여쭙고 싶다.(세계유산 문제로 현장에서의 복원이 디지털복원으로 변경되었지만)

2. 표1과 표2에서의 사업 수행내용과 기간에 대한 질문이다. 종합계획에서 1차 연구에서 5차 연구에 이르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인문학적 기반연구와 정비방안이 동시에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황룡사복원기본계획수립에 근간하여 정확히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진행과정 속에 부족한 연구 분야를 추가하며 수정과정을 거친 연구를 진행하였는지 궁금하며, 학제간연구가 근간인 인문연구와 정비계획수립 및 복원고증연구 시 연구진에 여타 전공 연구자들이 상시 연구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하여 궁금하며, 연구과정에서 타 연구 분야와의 협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할 것이 가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여쭙고 싶다.
3. 마지막으로 연구기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한다. 황룡사고증연구의 기간은 2024년까지 구체적인 사업이 마무리되어 약 20년간의 연구기간을 통하여 앞에서 언급한 수많은 성과를 바탕으로 중문과 남회랑 AR 어플리케이션 복원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연구자는 “1년간의 연구결과와 10년간의 연구결과가 같은 고증안이더라도, 1년짜리 고증안이 전문가의 신뢰를 받는 일은 절대 없다.”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인식개선과 함께, 연구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라는 언급은 연구기간의 숙고는 반드시 필요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는 차후의 백제왕도의 고증연구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20여년의 황룡사복원정비연구와 성과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백제왕도지역의 고증연구 기간(공산성 10여년, 군수리사지 5~7년-군수리사지는 연구로드맵 진행예정)을 살펴볼 때 연구기간의 산정이 충분한 기간으로 판단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연구기간이 필요한가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여쭙고 싶다.

황룡사복원정비 고증연구의 과정과 과제

- 토론문 -

김왕직

명지대학교 교수

황룡사 고증 및 정비 관련 연구는 26년간을 이어온 문화재 연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다. 고증연구는 변함이 없으나 정비계획은 정비목표에 따라서 생성과 소멸, 변화를 거쳐 오면서 끊임없이 변화하였다. 정비목표와 방향은 고증과 같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정도와 보존철학, 문화재 정비 방향에 대한 세계적 조류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매우 주관적이고 감성적이 부분이다. 따라서 고증과는 별도로 시행을 위해서는 정비 방향에 대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효원 선생님의 그간 정비와 고증연구 과정에 대한 정리 부분은 일목요연하고 함축적으로 매우 잘 정리되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도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계점을 분명히 짚었으며 필요한 과제를 정확히 맥을 찾아 제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문인력의 양성이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환경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고 가장 필요한 과제라는 것에 공감한다.

하지만 26년이라는 기간은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구자에게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수요자에게는 매우 긴 시간이고 가시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정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복원정비이다. 복원은 최소 물리적으로는 100%를 표현 해야하기 때문에 고증도 100%를 요구하게 된다.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타임머신을 타고 당시로 돌아가기 전에는 100% 고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은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100% 고증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문화재는 상상복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세계유산의 철학과 기초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복원정비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100% 고증이 아니어도 된다는 합의와 독자적인 복원철학의 정립 없이는 현재도, 앞으로도 ‘복원정비’라는 것은 단어만 존재할 따름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원의 가치를 새로 정립하고 복원과 보존에 대한 독자성과 자신감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비기술과 기법이 아니라 정비의 목표와 철학에 있다. 발표자는 ‘복원건물의 건축을 위해서는 하나의 복원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100%의 고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원정비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토론자는 그렇

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 실물 복원의 목표가 교육과 관광에 있다고 하는 일반적인 목표에도 공감하지 않는다. 문화재 보존의 목표는 물리적인 수명을 최대한 연장시켜 후손들도 현재의 우리와 똑같이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관광을 활성화시켜 경제적인 이득을 목표로 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최후순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는 망실되어 소멸하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다. 문화재 복원은 이미 없어진 문화재를 다시 살리는 것이지만 보존과 목표가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떤 가치를 회복할 것인지에 따라서 복원의 방향은 다양할 수 있으며 그것은 문화재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획일화할 수 없다.

황룡사 복원과 관련해 보았을 때 창건 당시의 온전한 모습을 물리적으로 100% 복원해 냈다고 하면 건축의 상세, 기법, 기술, 배치 등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건축의 실물 교과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쓰임과 관련된 기능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고, 복원에 100% 신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역사적 진정성 또한 느낄 수 없다. 따라서 기존 유구의 손상을 예외로 하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를 느끼고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100% 고증이 가능해도 복원할 것인지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황룡사는 복원의 고증성, 가변성, 경제성, 가역성 등을 고려하여 중문에 대한 디지털복원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되었다. 상기와 같은 목표는 달성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감, 역동감, 교육과 향유 측면에서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복원의 대상선정도 한 몫 했다고 생각한다. 중문은 당시 어느 사찰에나 있는 정도여서 차별화되지 않고 힘이 약하다. 황룡사는 탑에 상징성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탑을 먼저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복원 방법에서는 100% 고증할 수도 없기 때문에 100% 같은 모습을 재생해 낸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목표이고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회복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안으로 복원했을 때 오류에 대한 두려움, 왜곡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복원의 목표를 상실할 수 있다. 황룡사 9층목탑은 건축기술사적 가치보다는 240척에 이르는 높이가 주는 위용감과 도시의 상징성, 동양 최고의 목탑이 주는 자긍심 등이 황룡사 복원의 우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목표가 정립된다면 상세의 고증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의 복원안이 아니라 다양한 복원안을 각 면에 각각 다르게 접목할 수도 있고 반을 잘라 내외부가 동시에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조금 과격하지만 구조가 자신이 없으면 신재료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구조로 복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 황룡사 목탑이 갖고 있었던 경주라는 도시에서의 위용성과 상징성이라고 하는 정신적 가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다양성의 표현이 문화재를 향유하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무한한 상상력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복원의 가치를 한 층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문화재에 따라서 무엇을 향유하게 할 것인지에 의해 복원의 방향과 목표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연구자가 할 일이며 복원정비사업의 시행 여부는 전문가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복원목표의 공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토론 방향에 대해서 집필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공산성 왕궁유적 고증복원연구의 현황과 과제

- 토론문 -

장헌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유적복원연구의 기초가 되는 발굴조사는 그나마 건물의 평면 규모를 알 수 있는 중요한 1차적 자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공산성 왕궁유적 고증복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발표자는, 191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발굴조사 된 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하였고 복원고증 연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복원 연구계획을 중장기계획, 역사문화연구, 건물지 고증연구, 건물지 비교연구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며, 지금까지 복원된 사례를 중심으로 중장기계획에서는 매우 세부적인 연구주제를 제시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반연구를 기초로 심화연구단계를 1~2단계로 구성하고 복원된 공간의 활용과 경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발표자도 제시하였지만 공산성유적은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재이기 때문에 복원정비에 있어서도 “진정성” “완전성”에 대한 문제가 끝없이 대두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주제 발표의 첫 번째 화두가 될 것입니다. 복원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진정성”과 “완전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공산성과 관련된 발굴조사 관련 도면을 총정리 하여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이전자료는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도면이기 때문에 그 도면이 어떤 형태로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종류별로 정리하고 발굴조사보고서 등 학술자료를 수집·정리하여 고증복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산성 지형과 관련된 고문헌, 일제강점기의 지적도, 그 이후의 지형 측량자료, 최근의 3D 스캔자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현재 수목의 생육상태를 조사하여 고사목과 외래수종은 제거하고 잘 사용되지 않은 소로길은 원지형을 따라 복원하여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 공산성에 있는 목조 건물은 거의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관리에 소요되는 체계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복원과 관련하여 3D복원들의 시청각 자료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공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의 주체가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공산성 왕궁유적 고증복원연구의 현황과 과제

- 토론문 -

한주성

국립문화재연구소 책임연구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연속유산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리적으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등 3개 시·군에 분포하는 것으로 공주시가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공주시 일원은 일찍이 고대 교통로사에 위치한 중요한 지역이며 공산성은 한성기 말경부터 군사적인 거점으로 이후의 시기에다 군사적 요충지로 산성이 조성된 곳이다.

공산성, 특히 성내에 있는 왕궁유적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이전부터 진행되어왔는데 최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게 되었다.

공주 공산성은 백제시대 왕궁이 조성된 곳으로 백제시대를 대표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본 발표는 이러한 공산성에 대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과 문제점, 향후 방향에 대한 것이다. 기존의 단편적 연구방식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한 시간과 계획을 가지고 연구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하지만 발표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부족한 자료, 명확하지 않은 왕궁의 위치와 잔존 유구 등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공산성과 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적지의 경우, 그리고 각 시대에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지역적으로 의미가 있는 유적은 각 시대가 중첩되어 있어 대상 유적지에 대한 정비 및 복원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런 점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복원과 정비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현재 공산성 왕궁유적에 대한 고증복원연구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학제간의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토론자인 저 뿐만 아니라 대다수 연구자들도 인정하는 방식이라 생각한다. 다만 저도 유사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상의 성격과 상황은 다르지만 고증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몇 가지 방법론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리고 그동안의 작업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제안을 드리려 한다. 하지만, 이는 비슷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로서 가지고 있

는 공통의 어려움과 실행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을 공유하는 것이지 발표문에서 제안하신 연구계획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또한 수립하고 진행되어온 ‘공산성 왕궁유적 고증복원연구’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공부하지 못하고 주로 발표문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질문하는 것으로 이미 고민하고 대안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듣고자 하는 의도임을 말씀드리고 싶다.

크게 3가지 정도의 연구에 대한 질의이자 연구방법론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공산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목표는 명실상부 백제를 대표하는 왕궁유적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복원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백제시대 왕궁으로 보는 것에는 본인도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한성이나 부여, 또한 익산의 왕궁리유적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한반도의 삼국시대의 도성은 ‘산성+평지성’의 형태로 보고 있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공산성은 당시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적인 도성이나 궁성과는 다르게 군사적 목적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시대의 왕궁의 제도나 형태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형태를 추정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비교 대상의 선정이나 방법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굴자료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더 우선되고 확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물론 기존에 많은 조사와 이미 유효한 지역에 대해서는 발굴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따라 추가적 조사와 발굴이 선행되어 공산성 내에 있는 더 넓은 범위와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경주 월성에서 진행하였던 물리탐사를 통한 지하유구의 분포상태와 형태를 유추하여 월성이 궁성으로써 유효함을 확인한 전례가 있다. 물론 산성이라는 지형적 특성에 따라 경주 월성과 같이 전면적 탐사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그동안 추정되었던 지역과 추가적으로 의심되는 위치를 선정하여 발굴조사나 시굴조사 전 탐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지하에 존재하고 있을 유구에 대해 파악한다면 좀 더 충실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백제시대 왕궁과 도성 등 전반적 연구의 필요성을 말하고 싶다. 물론 아직 명확한 백제시대 왕궁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그리고 한성백제의 왕궁성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이나, 익산지역의 왕궁리유적 등 당시 백제 왕궁의 모습과 형태를 유추할 수 있는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들과 연계하여 백제 왕궁 및 도성의 종합적 연구가 바탕이되어 공산성의 왕궁유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성백제의 풍납토성은 초기 백제 왕궁의 형태로, 부여는 궁성 골격을 담고 있는 대상으로, 익산 왕궁리유적은 궁담 및 대형건물지 및 당시 백제의 도시구조로써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종합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복원과 정비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발표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왕궁유적에 대한 자료는 기초 및 초석 등 하부구조에 국한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당시의 왕궁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충분한 연구와 다년간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와 합의가 필요하며,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확실한 유구의 부분에 대해서는 복원의 개념이 아닌 유구의 보호 및 유구의 시인성 및 인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의 진행 후 정비를 시행하고, 건물의 상부에 대해서는 연구의 성과를 담아 가상복원을 시행하여 VR 및 AR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화를 진행하여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와 일반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이원화된 정비시행 계획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한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소에서는 황룡사와 미륵사에 대한 복원정비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상유구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두 가지 방법을 달리하여 진행하여 왔다. 비교적 유구의 시대가 중첩되지 않는 미륵사지는 건물의 기단부까지를 정비하는 방법으로, 황룡사는 당시의 문화의 우수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상복원을 통하여 현장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진행했다. 물론 현재에는 황룡사는 건물지 기단에 대한 정비, 미륵사는 가상복원을 통한 방법을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적용하여 진행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두 개의 방법을 동시에 적용한다면 그동안 문제 시 되었던 유구의 훼손이나 원형에 대한 문제와 유구의 보호라는 측면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셋째, 타 분야와의 협업연구의 진행은 요구하는 결과와 목표가 명확해야 하며, 각 분야별 연구의 한계를 인지하여야 한다.

본 연구 계획을 내용을 보면 정치, 생활, 의례, 기술 등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건축뿐만 아니라 생활과 의례, 토목공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와 연구가 협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최근의 복원 개념의 패러다임이 단순히 유형적인 것에서 벗어나 무형적인 것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역사문화유산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콘텐츠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부족한 자료와 시대적 제약성을 가지고 있어 분명히 연구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 범위와 활용에 있어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과학적 조사방법에 기인한 대지조성이 축조, 배수문제 등 토목공학적 연구나 고지형 분석 등의 분야는 연구의 성과나 결론 도출에 있어서도 충분한 학제간 공유가 필요하다. 미륵사지의 예를 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년 이상의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어느 정도 파악 후 토목 및 수리관련 분야와 협업하여 연구를 진하여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 과정 속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존재하였는데, 문화재를 보는 시각 차이와 도출결과를 바라보는 학제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탐사나 공학적 조사는 반드시 발굴조사의 내용과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발굴 또는 시굴, 부분 조사들이 병행해야 한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삼국시대에 대한 연구는 한계가 있다. 이 시기는 인접국인 중국은 이미 기록의 시대이며 일본 등에는 일부 비슷한 시기의 실존 대상이 남아 있는 상황과는 다르다. 물론 그러한 이유로 대부분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과 비교연구는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는 연구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방법론에도 한계가 있다. 각 국가나 지역의 영향관계는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한반도라는 지역적 특징과 백제라는 문화적 독창성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연구는 직접적으로 연구 결과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시대적 검증의 방법으로서는 유효하다. 따라서 그러한 한계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연구의 진행에 있어서 방법론적 시각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듯 고대문화에 대한 연구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그 결과를 현실에 구현하는 최종적 단계에서 중국 또는 일본의 형태를 모방하는 단계에서 머무르게 되거나 이러한 이유로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중단되기도 한다.

다행히도 이번 백제역사유적지구로 묶여 진행되는 연구는 단일 대상이 아닌 백제를 대표하는 문화권에 대한 종합연구로써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단편적이고 개별적 연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충실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표하신 공산성 왕궁유적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백제 왕궁 및 도성사적 변천 속에서 공산성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의미를 밝히는 연구로써 백제문화를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NOT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note. The box is outlined in black and occupies most of the page area below the 'NOTE' header.

『백제왕도핵심유적 정책연구포럼』 운영·참여위원 현황

연번	구분	이름	소속	직급	분야	비고
1	운영위원	권오영	서울대학교	교수	역사	
2	운영위원	성정용	충북대학교	교수	고고	
3	운영위원	김낙중	전북대학교	교수	고고	
4	운영위원	박현숙	고려대학교	교수	역사	
5	운영위원	배병선	前국립문화재연구소	실장	건축	
6	운영위원	박기화	한국전통건축연구소	소장	건축	
7	운영위원	조운연	충남동남권역문화재돌봄사업단	단장	전통조경	
8	참여위원	황인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소장	고고	
9	참여위원	이재필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과장	민속	
10	참여위원	박윤정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과장	고고	
11	참여위원	이동주	백제세계유산센터	센터장	세계유산	
12	참여위원	한수	국립공주박물관	관장		
13	참여위원	윤형원	국립부여박물관	관장	고고	
14	참여위원	공석	국립익산박물관	관장		
15	참여위원	서정석	공주대학교	관장	고고	
16	참여위원	박순발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고고	
17	참여위원	김건수	목포대학교	교수	고고	
18	참여위원	조원창	한울문화재연구원	원장	고고	
19	참여위원	서현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고고	
20	참여위원	이현숙	공주대학교	학예사	고고	
21	참여위원	심상욱	공주대학교	연구원	고고	
22	참여위원	이성준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	고고	
23	참여위원	노종국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역사	
24	참여위원	이병호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역사	
25	참여위원	이재운	전주대학교	교수	역사	
26	참여위원	정재운	공주대학교	교수	역사	
27	참여위원	이해준	공주대학교	교수	역사	

연번	구분	이름	소속	직급	분야	비고
28	참여위원	김왕직	명지대학교	교수	건축	
29	참여위원	이왕기	목원대학교	교수	건축	
30	참여위원	홍승재	원광대학교	교수	건축	
31	참여위원	김상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건축	
32	참여위원	이승용	목원대학교	교수	건축	
33	참여위원	이경미	(재)역사건축기술연구소	소장	건축	
34	참여위원	손태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건축	
35	참여위원	강옥희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활용	
36	참여위원	조홍석	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 제도	
37	참여위원	조영훈	공주대학교	교수	기록화	
38	참여위원	소현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전통조경	
39	참여위원	김학범	한경대학교	교수	전통조경	
40	참여위원	김규호	공주대학교	교수	보존과학	
41	참여위원	이찬희	공주대학교	교수	보존과학	
42	참여위원	정광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보존과학	
43	참여위원	위광철	한서대학교	교수	보존과학	
44	참여위원	조남철	공주대학교	교수	보존과학	
45	참여위원	이광표	서원대학교	교수	언론	
46	참여위원	김태식	연합뉴스	단장	언론	
47	참여위원	도재기	경향신문	기자	언론	
48	참여위원	조두원	경기문화재단	팀장	세계유산	
49	참여위원	한숙영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홍보·관광	
50	참여위원	김현숙	전북대학교	교수	도시·경관	

2021년 제1차 백제왕도핵심유적 정책연구포럼

백제왕도핵심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진단과 방향제시

백제왕도핵심유적 정책연구포럼

백제왕도핵심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진단과 방향제시